문화여성

문화매일

제 1069호 2021년 6월 4일 금요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함께하는 100년 농협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
광명농업협동조합
광명시 범안로 1063(하안동)
☎ (02-896-3141-4)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초청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분까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선의원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초청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고, 오늘에야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영빈관이 전통을 살리는 문양과 디자인으로 내부 리모델링을 한 후 (외부에서 오신)첫 손님이다"

"나도 초선의원 출신이라는 면에서 동지 의식을 느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인권, 평등, 복지, 남북 협력, 환경, 생태, 생명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고, 혁신의 DNA를 가지고 있는 역동적·미래지향적 정당이라는 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보가 이를 구현하는 정책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 그 지지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처럼 마련된 자리가 소통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초선의원을 대표하여 고영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선의원의 간담회 요청에 대해 보고받자마자 일체의 망설임 없이 바로 수락한 것과 한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코로나가 사회적 약자의 큰 고통을 초래한 만큼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고용보험, 손실보상 제도 등에 대한 비상한 조치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청년 등을 포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군 부실급식 문제 해결 등 장병들의 기본적인 처우를 조속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백신 휴가제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일용직 근로자도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발언이 있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보완, 청년 일자리와 청년주거 국가책임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 남북 정상 합의 국회 비준을 위한 정부 조치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중 중요한 사항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며 나아가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우리 정부는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집단면역 시기도 당겨질 것이며, 접종이 진행될수록 방역 상황도 좋아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여름휴가를 잘 즐기고 마스크를 벗고 추석을 추석답게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미국도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우리를 최고의 파트너로 생각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성과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간 혁신성장 빅3(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를 육성해 왔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나 방향을 잡았고, 궁극적으로 완결에 이르게 될 것이다"

"포용성이 높은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를 이기고 더 도약하는 힘이 되었다"

"초선의원들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아 달라"

문 대통령은 오늘 초선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하며 마무리 발언을 마쳤다.

오늘 간담회 테이블에는 성취와 성공을 상징하는 노란장미와 샌더소니아, 신뢰를 상징하는 블루베리 열매와 아스타가 놓여 있었다

최광수/기자

홍 부총리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7월 1일부터 시행"

재산세 인하, 이달 중 국회 통과 추진…"7월 재산세 부과 차질 없도록 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보완책과 관련해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 조치를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 조치를 위해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4 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4 공급대책 물량 83만 6000호 중 현재까지 22만 9000호의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진행중이다.

특히 도심 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4만 8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재개발 등 다른 유형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이 추가되는 등 불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2·4 대책의 경우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 소유주에서 시행자로 이전된 후 분양시 소유주가 재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재개발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없어 취득세가 면제된다.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앞으로 3개월간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칼럼] 요즘은 돈 나고 사람 났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고? 돈 없는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 중 한마디다.

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을 지배하는 수단이자 목적이며 인간만이 갖는 모든 거래의 수단이다.

당초 물물교환 할 때야 몰랐지만 석기, 목기에서 엽전과 종이 어음으로 이어진 돈의 역사는 이제 가상화폐와 카드, 스마트폰 페이가 등장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돈 때문에 목숨 걸고 일하고 싸우고 죽고 죽이고 온갖 난리를 치지만 정작 돈이란게 원한다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요 반대로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사람의 집착은 곧 현실이기 때문이며 제 아무리 고고한 척 내숭을 떨어져 고액의 돈다발앞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당첨 확률이 814만 5천분의 1이라는 로또복권 구입에 매주 토요일이면 장사진을 이룬다.

물론 앞뒤가 전혀 납득가지 않는 현상이고 월요일부터는 안사다가 토요일 오후 8시만 가까워지면 줄을 선다.

필자 또한 혼자만 동 떨어지는 기분 같아서 간혹 1만원으로 수기와 자동 반반으로 사 보지만 지금까지 약 10년간 100만원 정도 구입했을 뿐 1만원 이상 당첨된 예는 없었다. 문제는 그래도 주말이면 복권 판매점을 기웃거린다는 점이다.

본보의 본사가 경기도 안산의 법원 앞이다 보니 언젠가 추운 겨울 날 법원 앞 벤치에 걸터앉아 눈시울을 적시는 노인을 본 것이 있다.

하나 뿐인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는데 합의금도 변호사 수임료도 없다면서 한숨짓는 경우였다.

사연이야 딱하지만 도와줄 방법도 없고 노인이 어렵사리 구한 몇 백 만원의 돈은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그리 큰 돈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 뿐인 월셋방 보증금을 털어온 돈이 누구에게는 하룻밤 술값밖에 안될 수도 있다.

뿐인가 평소 잘 아는 준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취재하다보면 망연자실한 환자 가족들을 본적이 있다. 물론 돈이다. 날 때부터 노래방 도우미로 태어난 사람이 있던가.

어제까지 잘살던 무남독녀 외동 딸로 집안 가장의 사업실패로 인해 술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때 잘나가던 사람도 어느 날 버스 탈 요금마저 없어서 걸어야 하는 게 사람 사는 인생이다. 그 많은 직업 중 하늘에 가서도 죄받는 직종이 돈놀이라 했다.

합법적 명칭은 대부업, 하지만 문턱이 높다보니 음지에서 고금리로 채권자가 되는 사채업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기승을 부린다.

수요에 따른 공급의 원칙, 가진 자들이야 제1금융권에서 서로 빌려가라고 부탁을 하지만 이른바 없는 자들은 은행 문턱이 어찌 생겼는지도 모른다.

제2금융은 물론 캐피탈 같은 제3금융권에서도 온갖 서류와 절차를 요구하며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연리 30%대의 높은 이자율이다. 그나마 싫으면 관두라는 격이다. 당장에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이 무슨 이자율을 따질까. 요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걸음을 보면 다소 과장스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얼마전 무연고 장례식의 참석을 보면 무연고는 이미 수 십년 전부터 있어왔던 우리 사회의 단면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무연고의 슬픔이 아니다.

가만히 잘 있다가 느닷없이 끄집어내 슬픔을 공감한다며 조의를 표한다. 사진상으로는 맞지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이건 뭐지 하는 느낌이다. 그 다음 십 수년 간 당연하다는 듯 조용하던 바다를 어느 날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말이야 맞지만 느닷없는 조치에 이건 또 뭐지 하는 판단이 든다. 그러던 이 지사가 오늘은 사채시장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단다. 이론이나 내용이나 기가 막히게 좋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이 들까. 고금리, 돈놀이 라는게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떼이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법이 까다로워서 빌려줄 때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다.

일부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전부인 마냥 없어서 서러운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의도적으로 긁어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사채 시장, 어제 오늘 일일까. 어느 날 갑자기 도지사가 팔을 걷어 부치고 다부지게 단속한다면, 그동안은 뭐했을까.

갑자기 현행법이 어쩌고 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하겠다는 등 큰소리를 친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제 와서 개선하겠다면 그동안은 할 수 있었는데 안한 것인가. 아니면 몰랐었는데 알게 됐으니 단속한다는 것인가. 그랬다면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이다.

빌린 사람이 고액의 이자를 빌리고 싶어 빌렸을까. 당장에 고액이라도 빌릴 데가 없고 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못 빌리면 당장 밥을 굶거나 빚에 쪼들려 죽을 만큼 어렵기 때문에 빌리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이런 난리를 친다고 이재명 한 사람은 생색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채업자들이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며 잠식해버리면 정작 급한 사람들은 그나마 어디서 돈을 구할까. 고양이도 몰리면 쥐를 문다고 했다.

도청 안에 앉아 제대 월급 받으니 당장에 급전이라도 빌리려는 사람들의 심경을 모르는 것이다.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사기 위한 일시적인 정책이나 생색내기 공약은 선포도 이행도 하지 말아야 한다.

정작 벼랑 끝에 몰린 도민들을 구제하려면 쓸데 없는 예산 모아서 단전·단수 가구에 최소한의 전기와 수도를 유지시켜줘야 하고 굶는 자들에게 동사무소에 무상 양곡과 화장지와 기본 반찬이라도 공급해야 한다.

급전이라도 써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런 가구들이다. 앞뒤 모르는 장밋빛 청사진 보다 구정물이라도 마셔야 갈증을 면할 수 있는 자들의 환경부터 이해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덕암/김균식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4일 환경의 날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26회 환경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환경부는 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안산시 시화나래조력공원에서 '제26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남국 국회의원,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참석하며 유공자 포상,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담긴 주제공연 등이 진행된다.

올해 기념행사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고려해 대면 참석은 최소화하되, 국민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부 유튜브(www.youtube.com/c/mevnewsroom)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환경의 날'은 유엔이 1972년부터 6월 5일을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다.

이날 환경부는 기성세대의 적극적인 기후행동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환경교육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주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환경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는 그간 환경 보전에 공로가 큰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유공자 38명이며 훈장 4명, 포장 5명, 대통령표창 15명, 국무총리표창 14명이다.

국민훈장동백장에는 송기순 전일환경 대표이사, 민경천 지엔원에너지 연구소장,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홍조근정훈장에는 장영기 수원대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환경부는 '환경의 날' 기념행사 사전 홍보 및 국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이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실천 챌린지' 행사를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5일까지 환경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하고 있다.

최광수/기자

박재호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제정안 발의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안)」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오는 6월 4일 14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15층)에서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발의했고,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되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 · 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통계 분석과 법률 제정안 검토"발제문에서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다중사기범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다중사기의 심리학적 분석에 기반한 예방과 대응"발표문에서 다중사기범죄 주요 사례를 통해 다중사기의 행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다중사기범죄의 효과적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김대근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 개념의 정립과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시론"에서 다중사기범죄 현상과 불법구조 분석을 하고 다중사기범죄 피해자 구제의 방법과 입법방식을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정민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가 참석해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이 법안 제정 관련 관계기관의 의견을 발표한다.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은 사기범죄를 일대일로 전제하고 있어 수많은 서민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형량이 낮고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해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정법은 피해자수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처벌 형량을 올리고, 피해자 개인이 아닌 단체를 통한 소송을 통해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으며,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은 범죄자가 두 번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그리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김정재 의원, '박영선 마스크 방지법'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2일 국가·지자체 예산으로 제작된 소품을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박영선 마스크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는 어깨띠나 윗옷·표찰·수기·마스코트 등의 소품을 사용할 수 있다. (제68조 1항)

하지만 해당 소품이 국가 예산으로 제작된 경우 유권자들에게 공무원이 선거를 지원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지만 이에 관한 금지규정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치러진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작한 마스크를 쓰고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해당 마스크는 지난해 6월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 캠페인 활동인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를 위해 약 2,700만원의 국가 예산을 통해 제작된 마스크로 드러났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박영선 후보의 해당 마스크 사용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마스크는 후보자가 장관 재임 시 소장하고 있던 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정재 의원은 "당시 박영선 후보가 착용한 마스크는 명명백백하게 국민 혈세로 제작되었기에, 박 후보가 선거를 위해 본인의 치적 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해당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기 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박영선 후보자가 사용한 마스크처럼 국가 예산으로 정책이나 사업 홍보를 위해 제작된 소품은 선거운동 중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단체장, 기관장 등 공직 경험이 있는 특정 후보자가 본인의 홍보와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세금으로 제작된 소품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에서 미래개척분야 최우수상 수상'

1인가구 지원조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 높게 평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쾌거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이 지난 2일 '2021 제3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미래개척분야 최우수상을 수상 했다.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은 거버넌스센터가 주관하고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후원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전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참여와 파트너십의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기반한 자치 분권 활동의 발굴, 전파, 확산을 위해 개최된 공모대회다

거버넌스센터는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생활편익 확대, 행정효율성 제고, 공동체역량 증진, 분권자치 강화, 지역활력 증대, 미래 개척, 코로나19 대응 등 7개 부문에 대해 공모를 진행했다

임 의원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주택, 식품, 가전 시장 등 각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연령을 불문하고 1인 가구의 돌연사(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자립기반 마련, 안전 증진정책 강화 등 정책적인 지원을 위한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 의원은 지난해에도 아이들과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활발히 발굴하고 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편성과 자영업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노로 '주민생활 편익 증진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임 의원은"2년 연속 수상을 계기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며"소외된 이웃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홍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류석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가5014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대표전화 : 1899-9659
편 집 국 : 02)2612-2959
팩 스 : 02)2060-4147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남원시

남원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2021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1(일) ~ 8. 9(월)

이거 보면 먹고 싶을걸~

공모내용
남원 농·축산물을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는 영상

결과발표
2021. 8. 31.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편 선정 후 국민심사 (유튜브 좋아요 득표수 평가)
최종선정 :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출품작규격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영상 자막 또는 화면에 남원 농산물 구입처 표기
② 요리 방법 소개
③ 맛있게 먹는 먹방
※ 출품작 규격 이외 영상 촬영 장소, 내용 구성, 화질 구성 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상금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입선	5	각 300천원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확약서 1부, 출품작 1편 제출(hijins@korea.kr)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계 (☎063-620-6044)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참고

서울 중구, 찾아가는 수요현장민원실 '현장에서 답을 찾다'

중구가 지난 4월 29일 청구동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동을 찾아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동네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미 발로 뛰는 구청장으로 정평이 나 있는 서양호 중구청장은 매일 새벽마다 걸어서 출근하며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실행으로 옮겨왔다. 중구는 현장의 소리에 답하며 변화하고 있다.

서 구청장은 "2019년 어린이집을 방문해 염분을 줄인 건강한 한끼 식사와의 거리가 먼 아이들 식판을 보고 크게 놀랐다. 아이들 얼굴만한 밥그릇과 국그릇이 식판을 꽉 채워 반찬 칸은 아이들 손바닥만했다. 한창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먹거리만큼은 제대로 제공하자는 생각에 중구형 건강 식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중구형 건강 식판은 2019년 9월 어린이집 관계자, 조리사, 보육교사와 중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 전문영양팀의 수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탄생했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기존 3찬 형태의 식판을 발전시킨 4찬 형태의 식판을 만들어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했고 친환경 식재료로 중구형 식단을 개발했다. 또한 급식재료 단가를 1일 4천원대로 대폭 인상,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적극 지원했다.

지난 5월 27일 진행된 신당5동 수요현장민원실에서 서 구청장은 어린이집 학부모로부터 부모의 마음을 읽어준 중구형 건강 식판에 대해 감사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번 수요현장민원실은 주민들의 민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동시에 그간 현장에서 들은 다양한 의견과 바람에 대한 결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당5동에 위치한 다산어린이공원 이용불편 민원을 모두 수용해 공원이 확 바뀌었다. 공원 환경 개선을 요청한 주민들은 놀이시설, 휴게시설, 바닥까지 싹 바뀌고 조경까지 제대로 갖춘 공원 모습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동호로 211 삼거리(아우디 전시장 앞)는 기존 좌회전 진입이 불가해 다산동 거주민들과 주변 이용자들의 불편이 큰 구간이었으나 좌회전 진입가능토록 했고, 지난 2월에 문을 연 신당누리센터 앞에는 학부모들의 횡단보도 신설 요청에 즉시 응답해 새롭게 횡단보도를 개통했다.

주민과 대화하고 현장을 찾는 수요현장민원실은 지난 4월 청구동을 시작으로 다산동, 약수동, 신당5동, 신당동에서 열렸으며 앞으로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이 무엇인지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 해결책이 보인다"며 "주민 곁에서 발로 뛰며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서울시, 누수 발견 7할이 시민 신고… 포상금 50% 인상한다

3일부터 누수 신고 포상금 2→3만원, 지급 방식에 모바일 상품권 신설

서울시는 한반도 길이의 13배에 달하는 상수도관 13,432㎞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누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용관과 노후관을 정비하고, 장비를 활용해 누수를 탐지하는 등 지속적인 누수 저감 활동을 추진한 결과, 1980년대 후반까지 연간 5만 건 이상 발생하던 누수가 현재는 연간 8천 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좁은 골목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누수는 신속하게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가 연간 발생하는 누수의 7할이 시민 신고로 발견됨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일부터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다. 포상금을 50% 증액해 3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방식에 모바일 상품권을 신설한다.

'누수'는 비가 오지 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물이 줄줄 흐르거나, 흥건할 경우 발생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누수를 발견한 시민 누구나 국번 없이 120번 또는 서울시내 각 수도사업소로 전화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8,636건의 상수도관 누수 중 3분의 2가 넘는 6,370건(73%)이 시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시는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굴착하고, 수도관 복구 공사를 실시했다.

누수의 주원인은 차량, 공사현장 등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3,738건(43%)으로 가장 많았다. 구경 50㎜ 이하의 소규모 누수가 대부분(7,297건, 84%)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탐지장비를 이용해 물이 도로 위로 흘러나오기 전 보이지 않는 땅속 누수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있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돌발적인 누수는 시민 신고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돌발 누수를 신속하게 찾아내 복구 조치하면 도로 함몰이나 결빙, 주변 건물 침수, 수돗물 낭비 등과 같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서울시 상수도관 누수를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0% 인상한다. 지급방법도 기존 현물 등기 배송에 더해 모바일 상품권 지급 방식을 추가했다.

누수신고 포상금액은 2000년 도입

당시 1만원이었던 것이 2006년 2만원으로 한차례 오른 후 15년 만에 인상됐다.

포상금 수령 방식도 다양화했다. 기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배송했다면,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상품권 지급 방식을 추가한다. 신고자의 편의에 따라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 누수된 경우,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산하기관 소속의 공무원과 관련 용역 수행자가 업무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누수 발견의 73%가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누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열쇠"라며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95.5%라는 세계 최고의 유수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누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누수 저감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동대문구, "나라 위한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동대문구는 2일 오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농동 마을마당(전농동 150-62) 내 위치한 참전유공자 명비와 주변 환경정비에 나섰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과 국가유공자 45명이 환경 정비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4,547명의 참전유공자 성명 및 공적이 각인된 명비를 청소한 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과 헌화로 호국보훈 정신을 고취하고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참전유공자 명비는 2014년에 건립됐으며, 약100㎡ 부지에 과거·현재·미래가 어우러지는 충혼의 벽, 주조형물, 부조상 등 세 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충혼의 벽에는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천해 생존하거나 사망한 참전유공자 4,547명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주조형물에는 '꺼지지 않는 충혼의 빛'이라는 주제로 상단에 태극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이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통해 성장·발전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빛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부조상 우측에는 빼앗긴 땅을 탈환하기 위해 고지로 돌격하는 모습이, 좌측에는 베트남 정글에서 부상당한 전우를 구출하는 모습이 조형적으로 표현돼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보훈 행사가 많이 축소된 것이 아쉽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는 수많은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임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종로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3년 연속 최우수(SA) 획득

종로구가 6월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2021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 2019년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받은 데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받은 것이다.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종로구를 포함한 21개 기초단체뿐이다.

이번 평가 대상 항목은 ▲공약이행완료 ▲2020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이며,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기초단체가 최우수등급인 SA 등급을 부여받았다.

종로구의 경우, 그간 구 홈페이지에 민선7기 공약사업 관련 총괄현황과 이행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

또한 코로나19로 대면 행정이 위축됨에 따라 주민과의 비대면 소통을 위해 온라인 투표,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제안 등 다양한 전자민주주의 기능도 적극 도입해 주민소통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작은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라는 신념하에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한 종로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셈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어느새 민선 7기의 막바지를 향해 향해가고 있다.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이라는 성과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쉼 없이 달려온 노력의 결실이라 여긴다"면서 "출발선에 섰을 때의 마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광수/기자

은평구, 백신접종 어르신 대상 경로당 운영재개

은평구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한해 6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1시~5시이며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재개 전 전체 방역을 시행한 후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 물품도 지원한다.

대한노인회 은평지회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하여 운영을 희망하는 경로당을 조사하고 사전 교육을 통하여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방역수칙 준수 등을 강조했다.

또한, 경로당에 백신접종 확인 대장을 비치하고, 백신 1차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어르신들에게 핸드폰 부착용 스티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접종확인용 스티커 보급이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 제고와 접종 사전 예약 홍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어르신들이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마음 편히 여가시설을 이용하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상순/기자

금천구, 안양천 생태텃논 개장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 2개소, 50명만 초청해 체험행사 진행

금천구는 2일 오전 10시 안양천 생태텃논을 개장하고 전통 모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2개소 50명만 초청해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머드체험, 미꾸라지 잡기, 비눗방울 놀이, 키다리 아저씨 풍선만들기, 모심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구는 지난 2020년 6월 안양천 하안보도교 옆(금천교 둔치방향) 가산동 340-2번지에 120㎡ 규모의 생태텃논을 조성해 매년 전통 모내기와 가을걷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텃논과 더불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미니연못 2개소에는 벼와 콩, 창포, 구절초, 해국, 물망초, 수련, 속새 등을 식재함으로써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현장체험의 기회가 줄어든 아이들이 이번 체험 행사를 통해 농업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 10월 가을걷이 행사 때는 여러 주민 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미성/기자

서대문구, 저탄소 실천 거점 '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 4일 개소

서대문구가 '환경의 날'(6. 5.)을 맞아 이달 4일과 5일 '함께 그린(Green) 미래'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구민 환경교육과 저탄소 실천의 거점이 될 '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홍제천로 111) 개소식 및 '지역사회와 함께 이루는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포럼이 잇달아 개최된다.

개소식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센터와 인근 홍제천에서 ▲손수건 커팅 ▲기후위기 비상대응 선언 ▲하천 정화를 위한 흙공 던지기 ▲홍남교와 두바퀴환경센터를 잇는 신설 보도교 개통순으로 진행된다.

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에서 이어질 포럼에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플라스틱 없는 카페 '보틀팩토리'의 정다운 대표, 도봉환경교육센터 마은희 센터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패널로 나서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실천과 노력에 관해 토론한다.

5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는 환경 관련 퀴즈를 함께 풀며 가족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기후환경 골든벨'이 열린다. 지난달 신청한 50여 가족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통해 참여한다.

이번 양일 행사는 서대문구청 동영상 공유 서비스(유튜브)로 생중계된다.

또한 이달 4일과 5일 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 안팎에서는 '2020년 환경보전 그림그리기·글짓기 대회' 수상작 30여 점이 전시되고 '2050 탄소중립 포토존'도 운영된다.

특히 포토존에서 촬영을 한 시민에게는 즉석에서 해당 사진을 인화해주고 이 인증샷을 SNS에 공유하며 환경보전 의식 확산에 동참하는 경우 기념품도 증정한다.

문석진 구청장은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친환경 저탄소 생활 실천 의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서대문구청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인천 중구청 펜싱팀, 제26회 김창환배 전국남녀 펜싱선수권대회 단체전 1위·2위'기염'

플러레팀, 지난해 우승한 부산시청 상대로 최종 승리

인천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이 제26회 김창환배 전국남녀 펜싱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냈다.

인천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충북 보은에서 열린 제26회 김창환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서 플러레종목 단체전 1위, 사브르종목 단체전 2위를 차지했다.

오혜미, 조아로, 최덕하, 김현진 선수로 구성된 플러레팀은 8강에서 성남시청에 43 대 33으로 승리한 후 경북체육회에 28 대 22로 승리했으며, 결승에서는 지난 대회 우승팀인 부산시청을 상대로 44 대 42로 꺾고 최종우승을 했다.

한편 한두미, 김도희, 지영경, 양에솔로 구성된 사브르팀은 8강에서 전남도청을 45대 44로 승리하고 준결승전에서 45대 40으로 승리한 후 결승에서 안산시청에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선수들은 코로나19라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장기철 감독과 한주열 코치의 지도 하에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훈련에 매진하고, 대회를 준비하며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일원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천 중구청 펜싱팀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전남 해남군에서 개최되는 제50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 펜싱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다시 맹훈련에 돌입한다.

김종남/기자

인천 동구, '배다리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인천 동구는 배다리 일원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을 대상으로 '2021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2일 개최했다.

구는 지난 2019년 6월'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된 배다리 일원을 위해 변경된 광고물 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낡은 간판을 정비하고, 배다리 지역과 업소의 특성을 살린 간판개선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2021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건물 18개동, 업소 25개소의 광고주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지난 5월부터 간판디자인 개발이 진행중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배다리 일원 상가 업소주과 간판 디자인 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사업추진 일정 및 간판 디자인 기본계획 소개와 주민들의 건의사항, 의견 등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사업의 완성도와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가진 업소주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사업 실행단계에서 간판디자인 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참여 업소들의 공감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 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지의 옥외광고물 및 경관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맡아 실질적인 주민주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 담당자는"이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좋은 간판에 대한 우수사례를 구 주민들께서 많이 접하실 수 있도록 하고, 주민·업체·행정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공감하는 사업추진을 통해 배다리를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유주/기자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2021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이 골목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경제활성화 등 공로를 인정받아 2021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정식 구청장은 지난 2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1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분권자치강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상이다.

김정식 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골목과 일상생활을 접목한 그린(Green) 일자리를 창출 등 '분권자치강화 분야' 최우수상 수상 영예를 안게 됐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소통과 참여 등 주민 자치에 의한 마을 활동이 인정을 받게 된 것이 가장 기쁘다"며 "'복지와 경제정책 시작점은 골목'이라는 구정철학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현장중심 종합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계양구 계양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랑의 모내기' 행사 개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안선일)는 지난 2일 관내 동양동 소재 휴경지에서 사랑의 모내기 행사를 진행했다.

계양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 단체 관계자들은 정성을 다해 모내기를 했다. 이날 심은 모를 꾸준하게 재배 관리하여 연말에 수확 후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안선일 회장은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내기에 참여하여 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매년 직접 농사를 지은 쌀을 저소득 가정과 홀몸노인 등에게 이웃돕기 성품으로 기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백미 10kg 50포를 기탁하였다. 이외에도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과 지원 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어 주위로부터 귀감을 얻고 있다.

최재은/기자

인천시, 해양수산부와 '반려해변' 공동운영 협약 체결

천광역시는 6월 4일 해양수산부와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해 민간 역량 활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민간 참여 활성화 도모를 위해'반려해변' 공동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미국 텍사스에서 개발한 해변입양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반려해변' 사업은 해변을 반려생물처럼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은 명칭으로서 지역기업·단체가 특정해변에 책임감을 갖고 정화활동, 경관개선 등을 추진하며 관리하는 민간주도형 바다가꾸기 사업이다.

6월 4일 거제에서 개최되는'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반려해변 공동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기업·단체와 지역 해변 연계 추진과 반려해변 홍보를 위한 서울역, 강남역 등 옥외광고와 유튜브 홍보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반려해변'사업에서 인천시는 반려해변 대상지역 결정과 기업·단체 연계 지원, 수거된 쓰레기 처리 등 참여기관의 반려해변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는 반려해변 참여 기업·단체에 대한 평가 및 포상, 홍보 등 제도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천시는 올해 약 9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 바다환경지킴이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 해양환경 정화선을 통한 무인도 쓰레기 수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제정 ▲ 해양 및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인천앞바다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2022년 옹진군 해양환경정화선 건조 지원을 위해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영길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반려해변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해양쓰레기의 심각성과 감소 필요성을 알리고 민·관이 함께 해양환경 보호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해양 정화 활동을 주도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서대문구 전문 아동권리강사 양성한다

지난달 14명 기본교육 과정 수료 이어 올 8월부터 심화 과정 참여

아동체벌로 인한 사망사건 등 보호자의 낮은 아동권리인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존중받는 가정과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대문구의 앞선 행보가 눈길을 끈다.

서대문구는 관내 아동 보호자 및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전문 아동권리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1기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관내 어린이집 원장 등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달 기본교육 과정에 참여한 14명 전원이 수료했다.

교육은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운영되며, 세이브더칠드런의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총 62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기본교육 과정을 수료한 참여자들은 8월부터 시작되는 이론과 실습, 전문 봉사 등의 심화 과정을 마친 후 아동권리강사로 위촉돼 활동한다.

이를 통해 구는 관내 교육 및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전반에 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조상순/기자

성북구, 맥양집(불법유해업소)가 사라진 삼양로 '청년창업거리로 대변신'

이른바 맥양집으로 불리는 불법유해업소 밀집했던 길음동 삼양로가 젊음과 문화가 넘치는 길음 청년 창업거리로 변신하며 꿈틀거리고 있다.

2018년 민선7기의 시작과 함께 성북구는 삼양로 불법유해업소 근절을 목표로 행정-주민-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업종 변경을 유도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37개소 중 20개소가 폐업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성북구는 불법유해업소가 폐업한 자리에 또 다른 불법유해업소가 들어서는 구조를 끊기 위해 이 거리를 청년 창업의 거리로 조성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다.

음침한 삼양로 거리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길음역에서 미아초까지 약 800미터에 이르는 양측의 낡은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안전펜스도 새로 설치하였고, 가로등과 가로수도 교체하여 거리 분위기를 바꾸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청년창업가게 6개소(낭만덮밥, 불나방, 위에서온 족발, 세화영화서점, 한술식당, 사가)를 지원하여 현재 활발히 영업 중이다. 특히 '위에서온 족발'은 북한이탈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족발의 원조가 이북이라는 점을 앞세워 지역 주민에게 참신한 맛을 제공하고 있다.

성북구는 2019년 삼양로의 변화를 주민에게 알리고 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시장 '두근두근 별길마켓'을 진행한 바 있다. 청년창업가·예술가·주민이 어우러진 거리마켓에서 수공예품·중고물품·간편 먹거리와 어린이체험·놀이, 주민 동아리 공연, 거리의 변화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숲길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길음뉴타운 주민 등 3만 여 명이 다녀갔다. 삼양로를 통해 통학하는 미아초 어린이 60여명이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직접 학교 가는 길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어서 감사하다는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주민의 문의와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성북구는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시점에 맞춰 두근두근 별길마켓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삼양로를 청년창업거리로 바꾸는 중추역할은 청년공간 길:이음에서 하고 있다. 2020년 운영을 시작하여 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커뮤니티 형성, 전문적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상권 사업을 통해 주민과 상인,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스토어도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공작소를 통해서는 청년 예술인 강사 양성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인창조기업인과 예비창업자에게 사무공간 및 주거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직주혼합협

공공임대주택 사업인 도전숙도 추진중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모두가 꺼리던 삼양로를 머물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거리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행정의 손을 잡아주신 주민과 경찰의 힘이 컸으며 이 거리에서 용기있게 도전한 청년도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고 강조하면서 "길음역 주변에 총 5,550 세대 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신축 중으로 도시의 변화에 걸맞는 젊음과 문화가 넘치는 청년창업거리로 변모할 수 있도록 민선7기 후반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창업의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청년창업자금 지원과 창업거리 조성 자문단을 운영하여 창업 컨설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부채납 부지 등을 활용하여 4차산업 시대에 맞는 4차산업 지원센터 조성도 준비하고 있다. 거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축제와 버스킹 공연 등을 계획하여 젊음과 문화가 넘치는 청년창업의 중심거리 삼양로로 탈바꿈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성원/기자

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 대거 적발

시,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나선 결과 총 73건 적발

전주시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전주전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음식물 혼합투기 및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투기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집중 단속 결과 △현장에서 불법투기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 18건 △불법투기 쓰레기에서 인적사항을 발견해 적발된 사례 26건 △감시카메라(CCTV)를 통해 적발된 사례 29건 등 총 73건이었다.

현장 적발 사례를 보면 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과 재활용품 등을 혼합해 버린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형폐기물(건축폐기물) 무단투기는 3건, 차량을 이용한 불법투기는 2건이었다.

감시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사례로는 차량을 이용해 건축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불법투기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으로는 중화산동 선너머공원 일대, 중화산동 세강빌라 뒤편, 중인동 중인초교 앞, 우아동 석소어린이공원 일대, 팔복동 팔복파출소 앞, 인후동 북가재미어린이공원 일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불법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상습 불법투기 지역과 그 주변을 대상으로 야간단속 등을 확대키로 했다. 또 전주시주부감시단을 활용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감시하는 데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전주시에 제기된 청소민원은 총 147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폐기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불법투기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송일/기자

대구시, 비산먼지 배출업체 기획단속 적발률 23%

대형 아파트 공사장 등 85개소 단속, 위반사업장 20개소 적발

대구시는 지난 3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대형 아파트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사업장 8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기획단속을 실시해 위반사업장 20개소, 적발률 23%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단속은 대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보조를 맞추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인 대형공사장의 미세먼지 감축을 목표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병행하고, 위반 의심사업장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취약시간대에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먼지날림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2개 사업장, 세륜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 적재된 토사 방진덮개 등 시설 억제조치를 했으나 조치 미흡으로 먼지 날림이 많은 16개 사업장, 주요시설의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2개 사업장 등이다.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으며, 기타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서 행정처분과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대구는 지금 재개발·재건축 호황으로 지역과 계절 상관없이 공사현장에서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며,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 매의 눈으로 감시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파주시, 주정차 단속공무원 제복 입는다

시민이 신뢰하는 단속활동 기대

파주시가 주요도로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주정차 단속공무원이 새로운 제복을 입고 현장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제복에 파주시 로고와 주차단속 휘장을 달았다. 특히 상의에 '주차질서', '교통지도', '단속'이라는 문구를 넣은 휘장을 달아 누구나 공무원임을 알 수 있게 했다. 또, 사시사철 야외에서 근무하는 만큼 하복과 춘추복을 만들어 계절에 따라 교체해 입을 수 있게 했고 경찰, 민간 단속원과 구분되는 디자인을 선택했다.

파주시는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을 위해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라는 시정방침과 단속공무원의 임명, 권한, 업무, 교육, 복장 및 복제 등 전반적인 규정이 담겼다.

파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상 교통질서 유지 권한이 있지만 그동안 민간주차관리원이나 용역직원과 외형상 구분이 어려워 현장단속 시 애로사항이 있었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직무교육, 단속시스템 개선 등으로 단속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며 "4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지에 주정차를 삼가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평택시 용이동, 클린 용이를 위한 게릴라 무단투기 단속 실시

평택시 용이동(동장 장일현)은 쓰 된다.

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해 6월~10월까지 '클린 용이를 위한 게릴라 무단투기 단속'을 매주 1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야간 취약시간대(19시부터 21시)를 이용해 무단투기 상습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계도활동도 함께 펼칠 계획이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

아울러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이동식CCTV 게릴라 단속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영상에서 적발된 무단투기 행위사진을 현장에 게시해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일현 용이동장은 "이번 게릴라 무단투기 단속을 통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해 깨끗한 용이동을 가꿔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예산군,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합동단속 실시

예산군은 충남도와 함께 6월 2일부터 18일까지 관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질소, 인 함량이 높은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녹조 등 수질오염 유발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된다.

단속내용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 살포 및 유출 여부 △배출·처리시설 허가·신고 이행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정화처리시설 정상 운영 여부 △자원화 시설 정상 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배출·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장마철을 대비해 수질 환경 보전 및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아산시,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 집중단속

아산시가 도심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흉물로 자리 잡은 의류수거함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도심 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쓰레기 배출 장소로 오인돼 주변에 무단 투기 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학교 주변과 인도에 설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아산시는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초부터 도시환경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4월부터 시작된 의류수거함 집중 정비기간을 6월까지 연장해 일제 정비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의류수거함을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관리가 되지 않는 의류수거함을 정비함으로써 깨끗한 아산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설치 금지 장소에 있는 의류수거함을 빠른 시일 내 자진 철거해 도시환경정비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4월부터 시작된 의류수거함 집중 정비기간 동안 계고 44건, 강제철거 34건을 실시했다.

최재은/기자

김상호 하남시장, 제3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코로나 대응' 우수상 수상

김상호 시장, 2일 거버넌스센터 주최 '제3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수상

하남시는 김상호 하남시장이 지난 2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코로나 대응'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거버넌스센터 지방정치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중에서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가는 유능한 지방정치인을 선정하기 위해 매년 거버넌스센터가 개최하는 공모대회다.

올해는 '주민생활편익 확대, 행정효율성 제고, 공동체역량 증진, 분권자치 강화, 지역활력 증대, 미래 개척', 그리고 2021년 특별주제인 '코로나 대응' 등 총 7개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김 시장은 '공동체와 연대로 극복하는 코로나19'를 주제로 응모해 코로나 대응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남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최초의 '호흡기감염클리닉'과 '하남시 예방접종 시행추진단' 등 민·관·군·의료전문가들과 함께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 같은 모두의 노력이 더해져 '호흡기감염클리닉'은 중앙정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전국으로 확대됐고,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은 전문가 중심의 신속한 접종시스템으로 경기도 내 가장 빠른 접종률을 기록하는 등 하남시만의 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로 위기를 극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상호 시장은 "오늘 수상은 연대와 협치라는 거버넌스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공동체 참여와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하남시 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기회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넓혀 지방자치 발전을 꾀하고, 신속한 접종과 방역 관리로 하남시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수/기자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미군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적극 지원 건의'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6월 1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의정부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의정부시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은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따라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대형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캠프 스탠리,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사업 변경과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 GTX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캠프 홀링워터의 사업 변경 등 총 13건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행정안전부의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이 이루어지면 정부 정책사업인 대형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등 의정부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정부시의 미군 반환 공여지 8개소 중 6개소가 2007년 4월과 2020년 12월에 반환되어, 캠프 라과디아는 근린공원 및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캠프 홀링워터는 역전근린공원으로, 캠프 시어즈는 광역행정타운으로 조성되었으며, 캠프 에세이욘에는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와 부속병원이 건립되는 등 미군 공여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비상상황 대응 등 국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면담 기회를 주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감사드린다"며 "정부 정책사업인 대형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의 적기 추진과 오랜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발전종합계획 변경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으며 앞으로 의정부시의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광명시자원봉사센터, "2021 제3기 광명자원봉사대학" 입학식 및 박승원 이사장 기조 강연 진행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박승원)는 1일, 자원봉사의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리더를 육성하고 정리수납 전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제3기 광명자원봉사대학" 입학식을 가졌다. 또한, 박승원 이사장은 '자원봉사와 민간주도성'을 주제로한 기조 강연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제3기 광명자원봉사대학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으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에 진행한다. 시민리더 양성과정은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원봉사, 자원봉사와 인권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며,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과정은 공간정리의 기본 원칙, 주방정리수납, 옷장 정리수납, 자녀방 정리수납 등 집안 정리와 수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5회에 걸쳐 배우게 된다.

또한, 총 3회기 자원봉사활동 실습과정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가구를 대상으로 심리방역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지연 센터장은 "시민리더 양성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시민 리더로 성장하고, 정리수납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건강한 시민 의식을 갖춘 전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광명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오늘 입학생 중 최연소 봉사자인 김**(1985년생)는 "우리가 자원봉사대학에서 함께 배운 지식과 현장실습 과정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데 조금 이나마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니 무척 설레고 의미가 있는 교육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순희/기자

양평군립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동네방네 예술가'

양평군립미술관에서는 2021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동네방네 예술가'를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자유기획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3년 연속 선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첫번째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예술가'와 '작가의 작업실'에서는 지역 작가와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두번째 프로그램인 '미술관 음악회'는 온라인으로 제작, 양평군립미술관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 시청이 가능하다. '찾아가는 예술가', '꼬부랑 예술놀이', '미술관 해프닝' 등 다음 프로그램들도 12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동네방네 예술가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의 도시로써 지역민들의 문화적 가치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코로나 시국에도 양질의 문화 활동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끌어올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네방네 예술가'는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에 진행되며, 교육프로그램 관련 내용 확인과 예약접수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절차없이 누리집 뉴스레터 신청을 통해 미술관 기획전시, 교육프로그램, 각종 문화행사 소식 등을 문자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이성율/기자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개소 1주년 맞아

평택시는 지난해 6월 1일 개소한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가 시민의 소통창구로써 큰 역할을 하는 가운데 개소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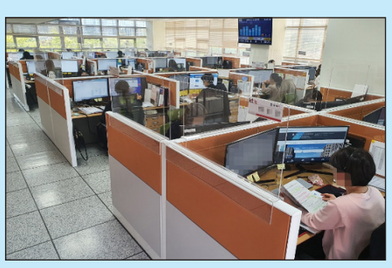
시에 따르면 콜센터는 지난 1년 동안 총 21만3,837건의 민원을 상담했으며, 문의 내용은 지방세·예산 분야가 3만4,3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안전 분야(3만2,320건), 교통 분야(2만9,467건) 순으로 나타났다.

콜센터는 지난 1년간 민원상담을 처리하면서 전화돌림, 반복설명, 무응답, 불친절 등 시민들이 겪는 민원 전화 4대 불만사항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전화상담 외에도 메신저(카카오톡 채널)를 통해 시정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민원창구를 개설해 생활불편 신고 및 단순 민원에 대해 텍스트, 사진 및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One-Stop 접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지난 1년간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귀 기울이는 소통창구로 자리 잡는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서비스 품질을 높여 보다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으로 시민 모두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콜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부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취약계층 지원 위해 기부금 기탁

지난 2일 부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이사장 염기동)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부천시에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사)부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는 9개 업체가 부천시 전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작년 1천만 원 기부에 이어, 이번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염기동 이사장은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기부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신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부천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유주/기자

의왕시,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건립 순조롭게 진행중

의왕시가 지난 4월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의 첫 삽을 뜨고, 202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로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건립은 노년기의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노인전용목욕탕 등의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여 노인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은 설계공모를 통해 몸을 닦고 마음을 세우는 '소통의 정자'라는 콘셉트로 어르신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419㎡ 규모로 지어지며, 기존의 아름채노인복지관과 연결되도록 설계하여 현재 복지관의 기능과 조화되고 더욱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관 별관의 주요시설로는 △지하 1층에는 160명 수용 규모의 노인전용목욕탕과 황토방을 △지상 1층에는 어르신들의 영양과 건강관리를 위한 270석 이상의 대규모 경로식당을 △지상 2층에는 사무실과 강당, 휴식테라스 등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활동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은 기존의 노인복지관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인접해 있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이 더 풍요롭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건립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편리하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왕시는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건립을 통해 고천·부곡·오전 지역의 어르신들이 노인전용목욕탕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사랑채 노인복지관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원종균/기자

화성시,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공개

화성시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지역 미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실시됐던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동네 미술'사업이 마무리 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가 주최하고 화성시가 주관한 이사업은 지역 예술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추진됐다.

이 사업에 참여한 팀은 총 4개 팀 37명으로 상상공작소(대표 최범용). 제이바이트(대표 김재범), 패스파인더(대표 박민주), 그레이큐브(대표 정수빈)가 참여했다.

상상공작소는 발안천 교각 하부에 조명과 벽화를 이용한 '레인보우 라이트 프로젝트'를 제이바이트는 봉담읍 화성국민체육센터에 아트벤치 프로젝트 '쉬어 가세요!'를 조성했다.

패스파인더팀은 궁평항 안내센터에 '아트 테라포밍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그레이큐브는 장지천 산책로에 조형물 및 벤치 설치를 이용한 'WALKING MUSEUM'을 설치했다. 이 작품들은 앞으로 3년간 운영된다.

각 작품별로 교각 하부 및 산책로 등 공공장소를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고 작가와 주민들이 협업하여 지역예술인들과 주민들이 상생하는 사업모델을 창출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미술 작품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쉼, 행복, 사색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문화공간이 화성 전역에 재탄생돼 공간의 품격을 높였다"며 "문화 공간 4곳이 앞으로 화성시의 명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가꿔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남양주 다산에이스병원, 남양주시 서부희망케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남양주시 다산에이스병원은 지난 1일 남양주시 복지재단 산하 사회복지관 서부희망케어센터와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다산에이스병원은 서부희망케어센터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발견·연계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 예정이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융합형) 대상자의 지역 복귀를 돕는 데에 중점을 두어 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다산에이스병원 이덕구 대표원장은 "남양주에서 신규로 개원한 우리 병원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영미 서부희망케어센터장은 "다산에이스병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함께 하게 되어 큰 힘이 되며 앞으로 기대가 크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양주시민들이 마을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선도사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이 탈시설·탈병원화하여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문화·여가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정근/기자

김포시청소년재단 사우청소년문화의집, 도지사 표창 수상

(재)김포시청소년재단 사우청소년문화의집은 '2021년 경기도 청소년상 및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자' 포상관련 단체 부문에 선정,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과 건전한 청소년 성장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의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사우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문화·예술·특성화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미래 사회 주역인 청소년에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마련해 왔다.

김포시청소년재단 최규장 수련관장은 "김포시청소년재단은 미래를 주도할 청소년들을 위해 창의적이고 주도적 역량강화를 위하여 시대적 트랜드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비대면 활동 등을 강화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자기계발 등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동희/기자

구리시, '백신접종' 완료 스티커 제공! 코로나19 안심 도시 분위기 조성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한 신분증 부착용 스티커 제공

구리시는 6월부터 코로나19 백신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시민에게 신분증에 부착할 수 있는'COVID-19 백신 접종 스티커'를 현장에서 제공한다.

또한 6월 이전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구리시민은 구리시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방문해 요청하면 접종 완료 여부 확인 후 스티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등 백신 접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시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자긍심 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COVID-19 백신접종 스티커 부착을 통해 백신 접종 완료사실을 주변인들에게 알려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과 위탁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백신을 접종받은 병원 및'정부24'등 정부 공공사이트에서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를, 모바일 앱인'질병관리청COOV'에서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만식/기자

양평군,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 경기 FIRST에서 대상 수상 쾌거!

양평군의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이 새로운 정책공모 2021, 경기 FIRST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경기 FIRST'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의 실현을 위해 총 6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대규모 사업 4개, 일반 규모 사업 7개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29일 예비 심사를 통과한 대규모사업 부문 4개 시·군과 일반규모사업 부문 7개 시·군은 6월 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최종 본선에서 열띤 발표 경연을 펼쳤다. 양평군은 대규모사업 부문에 응모해 하남시의 '삼.위.일체, 한지붕 세가족 건강한 동행'과 여주시의 '남한강 문화 예술교 조성', 그리고 안산시의 '소중한 생명, 즐거운 바다, 경기 AQUA LIFE 누리사업'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 최종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은 용문면 다문리 산38-1번지에 방치된 폐 철도 자갈 채석장 부지를 활용해 자연·인공형 클라이밍장을 비롯한 다양한 산림레포츠 시설을 도입하고, 기 조성된 경기도 순환둘레길과 연계하는 두가지 코스의 건강길을 조성해 양평군의 관광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 중이며, 순환길을 통해 용문천년시장과 용문역을 연결해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원스탑 힐링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70억 원으로 이번 공모에서 대상 선정으로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차질없이 원할한 사업이 추진 될 전망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쾌거를 위해 공모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 여러분들과 군민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경기 동부권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양평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율/기자

오태완 의령군수, 새 군정 공약 실행 준비

빈틈없는 준비로 군민과의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할 터

경남 의령군은 오태완 군수의 공약 44개 단위과제의 실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군은 오태완 군수가 지난 4·7 재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의 경제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소요예산 등을 추정하는 '계획수립 작업'을 이달 중순까지 끝낼 방침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군수 취임 후 공약 목록을 관·과·소별로 배정한 뒤 담당부서에서 1차 검토를 마쳤고, 군수가 직접 계획수립과 실행방안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논의를 가진 뒤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을 거쳐 6월중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후 공약 추진상황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거공약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게 되며 위원회의 조언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약 달성을 위해 단기와 중장기로 소요기간에 따라 사업을 구분한 뒤 재원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실천계획을 마무리 하여, 단기사업의 경우 올해 추경에 소요예산을 반영하며, 중장기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실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오태완 군수의 공약을 과제별로 분류해 보면 ▲의령 미래 50년 중장기 정책과제 마련 ▲의령 소득 3만불 시대 창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슬로시티 건설 ▲품격있는 명품 관광 문화도시 건설 ▲농촌이 잘사는 '농촌부흥프로젝트' 추진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의령 건설 등 모두 6개 분야로 핵심전략을 설정했다.

우선, 미래 50년 중장기 정책과제 마련에는 미래교육테마파크 조기 완공을 필두로 드림시티 의령 건설을 위한 의령 청년몰 조성, 청년 의령 살아보기 정책 추진과 스마트시티 의령 건설을 위한 스마트행정시스템 도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긴급상황 시스템 도입 등 10건이다.

소득 3만불 시대 창출에는 부림일반산업단지 조기 착공과 함께 쿠팡 등 대형 물류기업 유치, 봉수 농공단지 기숙사 운영 확대, 의령·신반시장 문화테마관광형 시장 육성 등 7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슬로시티 의령 건설에는 군의 입지적 특색인 남강과 낙동강을 활용한 명품 100리길 조성 사업이 주축으로 미래산업인 무인물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드론 비행연습장 조성, 강변을 이용한 둘레길과 자전거 겸용 도로 조성, 남가람 명품 100리길 조성으로 강변 특화 꽃길 조성 등 모두 7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품 관광 문화도시 과제에는 매년 10월 호암문화예술제 개최와 함께 각급 미술관과 박물관 조성 등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으로 3건의 단위과제가 설정되었다.

농촌부흥프로젝트 과제에는 고소득 아열대 농업작목 도입, 항노화 특용작물 재배, 최첨단 축산시설 도입, 스마트 유리온실 구축 등으로 모두 6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복지도시 과제에는 어르신,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을 위한 기존의 복지시스템을 강화하는 가운데 의령읍 서동리 일원의 다목적구장 조성, 부림면 신반리 체육공원 겸용 어린이 공원 조성 등을 포함한 11개 단위 과제가 설정되었다.

앞서 오태완 군수는 지난 4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약 이행이 지역 개발과 경제활력으로 이어지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며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본 뒤 공약을 확정해야 한다"며 "모든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이니 실행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오태완 군수는 지난 4월 21일 군정 철학과 비전을 담은 군정목표로 "군민 우선, 화합 의령"을 설정하고 ▲앞서가는 스마트 농업 ▲군민이 행복한 복지 ▲함께 누리는 경제도시 ▲품격 있는 문화 교육 ▲소통하는 변화된 행정을 5대 군정 방침으로 정하여 공약 이행 등을 뒷받침할 비전을 설정한 바 있다.

강영훈/기자

부산시, '스마트항만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6.2. 13:30 맥넷(MacNet) 주관 전략 세미나 개최… 정부·관련업·전문가 등 참여

부산시는 (사)해양산업통합클러스터(MacNet: Maritime Cluster Networking in Korea, 회장 이형철)와 함께 바다의 날과 연계하여 오늘(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온라인을 통해 '2021 맥넷(MacNet) 전략 세미나 Ⅱ'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부산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융합해 친환경 스마트 거점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친환경 스마트 해운·항만 부산항 경쟁력 있는가?'라는 주제로 정부와 관련업·단체·전문가들이 모여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에서는 ▲부산항의 친환경 스마트 항만 발전 전략(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언경 실장) ▲지능형 무인자동화 친환경 스마트 물류시스템(부산항만공사 연정흠 실장) ▲친환경 시대, 선박수리 및 선박관리산업 발전 방안(부산테크노파크 이재원 센터장) 등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제2세션은 ▲해운·항만 물류 시스템 개발자 입장의 기대와 희망(토탈소프트뱅크 이훈 소장) ▲친환경 스마트 해운에 대한 견해(HMM 오션서비스 변상수 부장) 등 주제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3세션은 1·2세션에서 발표한 주제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루어진다. 허윤수 부산연구원 실장이 좌장을 맡고, 오원세 부산시의회 의원, 주상호 부산시 해운항만과장, 박순호 ㈜피엘지 대표, 김환성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각 주제 발표자가 토론에 참여한다.

부산항은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이자 2위의 환적 거점항만으로, 해운 네트워크와 항만 생산성 측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세계 주요 항만들은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자동화, 효율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산항도 이러한 항만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현재 부산시 해양수산물류국장은 "부산항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글로벌 친환경 스마트 거점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부산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인 만큼, 부산항의 발전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사)해양산업통합클러스터(맥넷)은 해양산업 분야 산학관연 51개 협업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 발전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화상 토론회(웨비나)로 개최되며 세미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남궁영기/기자

김해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본격 추진

김해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9000만원, 시비 3억1000만원 등 총 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올해 말까지 관내 131개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부담은 총 설치비의 약 20%이다.

아울러 시는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대성동, 활천동 일원을 대상으로 주택·공공·상업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설비를 보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대상지역 주민은 오는 18일까지 김해시청 미래산업과(☎055-330-2864) 또는 대표 시공업체 ㈜그랜드썬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 4월 설치업체 컨소시엄 모집을 공고해 ㈜그랜드썬(태양광), ㈜대신에스앤비(태양열), ㈜유지에스(설계·감리)를 시공업체로 선정했다. 수요조사 완료 후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제출한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주택·공공·상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된 지역에 신재생설비를 설치하는 구역복합지원사업과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같은 대상지에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간 융합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융복합지원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굴해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거창항노화힐링랜드' 군민 우선 관람 기회 제공

거창군은 거창항노화힐링랜드 내 위치한 Y자형 출렁다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임시휴장에 들어감에 따라 출렁다리를 방문하지 못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 최초 무주탑 Y자형 출렁다리가 있는 거창항노화힐링랜드는 2014년부터 2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한 거창의 대표 산림휴양시설로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센터, 자생식물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올해 4월부터 거창항노화힐링랜드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연중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숲해설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유아에서 성인까지 누구나 쉽게 숲과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다.

군민 우선 관람 기간은 6월부터 7월까지 매주 월·화 오전 9~11시로, 1일 거창읍을 시작으로 가북면까지 모든 읍·면사무소에서 하루 100명 이내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이동 코스는 자생식물원에서 Y자형 출렁다리, 무장애데크로드이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군민들에게 쉼과 힐링을 드리고자 거창항노화힐링랜드를 군민들에게 우선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며, "방문을 희망하는 군민들께서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최광용/기자

함안군, 찾아가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교육 실시

함안군은 지난 2일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함안우체국 집배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집배원들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촉진을 위한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과 위기가구 발굴 방법, 위기가구 발굴 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경로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례에 대한 예시 동영상 시청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집배원은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주민 한분 한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하며 군청 및 읍·면에 협조하여 위기가구 발굴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행복나눔과 관계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배원들이 위기가구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제보하고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메신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 4월22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함안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집배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됐다.

강영훈/기자

거제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시민 인센티브 시행

거제시는 1일부터 1차 백신접종만으로도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6월 중순 고령층 대상 1차 접종 완료 후 경로당 운영도 재개 할 계획이다.

6월 1일부터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일상회복 지원방안이 시행되면서 그 대상자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후 14일이 지난 접종완료자이다.

조부모 2명이 1차 이상 접종하신 경우, 총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며, 가족 내에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게 된다.

또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거나 비대면 면회를 하였으나 1일부터는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고,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된다. 다만, 접종 완료자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나 접종 미완료 종사자는 계속 검사해야 한다.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질병관리청 COOV를 검색하여 앱을 다운받아 '간편인증' 본인인증으로 모바일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에서 '코로나백신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 정부24웹페이지에서도 [예방접종증명]을 통해 코로나 백신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6월 19일까지 시행되는 접종대상자는 오는 3일까지 사전예약에 적극 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대상군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백신접종을 미룰 경우 10월이 되어야 접종 가능하다고 하니, 서둘러 사전예약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구신숙 감염관리과장은'거제시민 70%인 171,505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역수준으로 조정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강영훈/기자

경북도, 도심항공교통(UAM) 및 연계산업 육성 본격 스타트!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주) 등과 도심항공교통 세미나 개최

경상북도는 새로운 교통혁신 대표 아이템이자 미래먹거리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도는 3일 도청 화백당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주), 관련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경북형 도심항공교통(UAM)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심 지상교통 혼잡 해결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UAM)은 친환경 혁신 교통수단이자 기체·부품 등 제작, 건축·설계·건설 등 인프라, 운송·MRO·통신·플랫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가 연관된 산업이다.

2040년 세계 시장 규모 731조원(국내 13조원), 연평균 성장 증가율 31%에 달하는 거대시장 형성이 예측되며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함께 시장 발전가능성에 주목한 세계 각국 정부와 업계의 도전·경쟁이 치열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한국형 도심항공교통(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지난 3월 도심항공교통(UAM)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한국형 도심항공교통(UAM) 기술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도심항공교통(UAM)을 미래먹거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 구축 및 연계 산업 촉진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북도는 도심항공교통 초기 서비스로 공항↔도시 간 운행(에어셔틀)이 예측되는데 2028년 신공항이 들어서면 수요와 경쟁력이 있고, 국내 대표산업이자 경북의 중점산업인 자동차산업이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되는 가운데 도심항공교통(UAM)과 자동차가 산업생태계를 공유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도 창출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나진항 국토교통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UAM 특별법, 특별자유화구역, 산업생태계, 버티포트, 환승체계 구축 등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정책로드맵과 2030년 4~5인승 급 UAM 서비스 상용화 도입을 위한 단계별 목표와 기체·부품, 항행·교통관리, 인프라, 서비스 등 K-UAM 기술로드맵 핵심부문을 설명했다.

정민철 한국공항공사 경영전략부장은"미래 도심항공교통 최적 인프라인 버티포트(Vertiport) 모델을 설명하며 대구경북 신공항에 버티포트(Vertiport)를 구축한다면 접근교통체계가 보완되고 신규 관광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정규 한화시스템(주) UAM사업 전략팀장은"수직 이착륙 유·무인 항공기 특성을 활용한 수송, 치안유지, 산불진화, 응급환자 이송, 해안 감시 등 국방·공공분야에서의 다목적 사업을 소개하고 미래 도심공항 인프라 표준 모델을 활용하여 국내 지자체와 이착륙장 개발을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앞으로 경북도 산업·경제 환경여건에 부합하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도심항공교통(UAM) 및 연관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경북형 도심항공교통(G-UAM)을 미래먹거리산업으로 본격 육성해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6월부터 경북도에 적합한 UAM 사업 발굴을 위한 선행연구로'경북도 도심항공교통(G-UAM) 연계 산업육성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하반기 중 교통·산업·기업·인력·관광 등과 연계한 경북형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육성 종합 프로젝트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세기/기자

대한체육 새로운 100년을 여는 '전국체전 D-130' 구미시 체육회가 솔선수범

체육회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고 및 토론회 개최

구미시체육회는 2021년 5월 31일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에서 체육회 임원, 종목단체 회장·전무, 읍면동 체육회장 등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체육회 운영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개최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체육회 주요현황 사항인「구미시체육회 법인화 추진경과」와「제59회 경북도민체전 참가」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으며, 연이어 구미시 전국체전추진단 주관의「제102회 전국체전 준비상황 설명회」가 진행됐다.

지난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법인 설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미시체육회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위원장 황길영)를 구성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였으며, 법인 설립을 위한 각종 절차를 거쳐 구미시의 인가를 받고, 오는 6월 8일까지 등기 완료 후 6월 9일 부터 사단법인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제59회 경북도민체전」은 코로나19 전염병 예방과 전국체전 경북 개최로 인해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경상북도 일원에서 분산개최 된다. 구미시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28개 전종목 약 800여명이 참가 예정으로, 대회 경기일정은 분산개최 인해 종목별로 상이하며, 시군별 종합 시상은 시행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순연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은 경북에서 5번째이자 15년 만의 개최되는 대회로, 주개최지 구미시를 포함해 도내 13개 시군에서 전국체전 47개 종목, 장애인체전 30개 종목이 치러지게 된다.

구미시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시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100년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고 있다.

구미시는 이번 전국체전 준비를 통해 체육관련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국도비 440억원을 지원받아 시민운동장과 박정희체육관을 리모델링하고, 복합스포츠센터를 새로이 건립했다.

시민운동장은 구미 체육시설의 간판이자 전국체전 개폐회식 장소로 사용되며, 특히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는 2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 최고 수준의 40레인의 볼링장과 모든 실내 종목을 개최할 수 있는 1천석 규모의 다목적 경기장으로 신축하였다. 복합스포츠센터는 전국체전 기간 중 볼링경기장과 시·도본부로 활용되며, 대회 후에는 시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볼링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구미시는 이곳에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미시는 다가오는 대회를 위해 코로나19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면서,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대회 분위기를 살리고, 안전하고 감동적인 손님맞이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

외부로는 전국체전 주개최지로서 구미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내부적으로는 전국체전 성공 개최라는 목표를 위해 시민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 중으로, 대회 기간 방문하는 수만의 손님을 안전하고 감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친절마인드를 높여 나가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전국체전 성공개최는 불가능하기에 전국체전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전국체전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시민서포터즈와 자원봉사자 참여라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시민서포터즈는 전국체전을 앞장서 지원할 시민 리더로서, 자발적인 홍보활동과 응원 참여를 통해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 주변 곳곳을 관심있게 살피며 '다시 시작! 행복 구미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국체전을 지원하게 된다. 시민서포터즈는 2021년을 뜻하는 2,021명으로 구성되며 6월 중 읍면동별로 배정된 인원 내에서 모집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자는 대회 기간 중 대회 운영을 보조하고, 각 경기장에 배치되어 경기운영 지원, 장애인 및 노약자 지원, 관람객 안내,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 6월 중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경상북도 전체에서 3,000여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제102회 전국체전 준비상황 설명회」에 참석한 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체육의 자긍심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도민체전 참가와 전국체전 준비에 헌신한 체육인들을 격려하며, 올해 우리시에서 개최될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손님맞이 준비를 위해 코로라19 예방접종에도 체육인들이 먼저 앞장 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조병륜 구미시체육회장은 "코로나19로 순연된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체육회가 나서 손님맞이를 위한 숙박, 교통, 위생, 응급의료 등의 대회 준비사항 사전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체육인들이 솔선수범 함으로써 선수단을 비롯한 대회 참가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대한체육 새로운 100년을 여는「제102회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남궁영기/기자

문경시, 도시재생 협치포럼에 활발한 참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자체별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도시재생 4.0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2021 도시재생 임시총회 및 3차 정책포럼이 6월 1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도시재생협치포럼,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정책연구단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등이 후원하여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진 이번 행사는 앞으로 나아갈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주제로 하여 선도 정책 및 연구분야를 발굴하고, 각 도시별 특색에 맞는 재생사업 등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1부 임시총회에서 경북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고윤환 문경시장과 주낙영 경주시장이 임명되었으며,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출범식에서 고윤환 문경시장 외 4개 지자체장(포천시,무주군,경주시,광명시)이 함께 공동연구단장으로 위촉되었다.

2부 정책워크숍에서는 "소도시형 도시재생"을 주제로 지방 도시의 현황과 문경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점촌1,2동 중심시가지형, 점촌4동 경제기반형 사업과 중점추진사항등의 선도 정책연구 분야에 대해 발제하였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공동위원장과 공동연구단장으로 위촉된 만큼 문경의 도시재생이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각 지자체의 다양한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연구로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과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논의를 통해 도시재생에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선 후 행정통합 다시 불 붙을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선을 치르고 나면 행정통합의 불이 다시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치분권 강화를 요구하고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지사는 6월 1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판을 엎어라'는 주제의 특별 초청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판을 바꾸는 세 가지 구체적 방안으로 '통합', '자치분권 강화', '개헌'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첫 번째 방안으로 통합을 들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50.3%인 2,600만 명, 인구뿐만 아니라 GRDP나 일자리도 전국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화가 극에 달했다며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통합을 통한 도시화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대구와 경북을 합쳐 수도권과 맞서고 세계와 겨룰 수 있는 더 큰 대구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공론화가 늦어지면서 열기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대선 국면을 맞아 정치권의 관심도 부족해 장기과제로 넘기게 되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지사는 대선이 끝나면 통합의 불이 다시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에 대한 방향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야 한다며 대선 공약화하고 광역단체간 통합에 관한 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가 판을 바꾸는 두 번째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자치분권 강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50% 이하인 곳이 12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가 되고 나서 중앙부처에 가서 사정하는 게 일이라며 대부분의 단체장이 비슷하다는 말로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재정 불균형이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방낙후를 불러오고 있다며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세 비율을 높여도 지역마다 지방세 세원 분포의 불균등에 따라 단순히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으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19.2%인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을 인상하고 국세과목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하는 등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세 번째 방안으로 '개헌'을 들었다. 이 지사는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뒤 불행'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인사권과 예산을 모두 가진 지금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내각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내각제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며 정치권에 화두를 던졌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국민들과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도자를 너무 폄훼하지 말고 통합과 화합으로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로 특강을 마무리했다.

김세기/기자

경북 경주 주낙영 시장, 베트남 후에시장과 온라인 첫 만남 가져

경주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온라인 교류 적극 추진

경주시가 코로나19 상황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해외 자매·우호도시 간 온라인 화상회의를 갖고 교류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일 경주시에 따르면 주낙영 시장과 황 하이 민 베트남 후에시장이 지난 31일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황 하이 민 후에시장은 2019년 9월에 취임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교류를 이어오지 못하다가, 이날 회의를 통해 주낙영 시장과 사실상 첫 만남을 가졌다.

앞서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해외 자매우호도시 온라인 회의를 기획했고, 이란 이스파한시, 일본 나라시, 중국 양저우시에 이어 이날 네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양 도시 단체장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후에시와 경주시가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먼저 주낙영 시장은 "경주는 대한민국 '2021 스마트 관광도시' 후보지로, 앞으로 양국의 스마트 거점 도시로써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이에 황 하이 민 시장은 "자매도시 경주와의 인연을 특별하게 생각하며, 내년은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교류활동을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경주시에서 연수 중인 베트남 후에시청 소속 공무원인 '도안 칸 응우옌' 씨가 연수소감을 발표해 회의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황 하이 민 시장은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경주시 관계 공무원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베트남 후에시는 베트남 마지막 왕조인 응우옌 왕조의 수도로, 역사문화도시라는 양 도시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지난 2007년 9월 7일 경주시와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한반식/기자

김승수 전주시장,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수상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을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역 혁신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최고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일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1 제3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대회장 김진현, 조직위원장 이형용)가 주관하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후원한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참여와 파트너십 등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기반해 우수한 정치역량을 발휘한 지방자치단체장에 수여되는 상이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거버넌스 구현도, 성취도, 혁신 파급력, 창의성·참신성, 자기계발 등의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추진 등 시민들과의 꾸준한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온 김 시장을 올해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미촌을 무대로 한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주도로 민관 협력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거버넌스 성공사례로 꼽힌다.

도심한복판에 자리한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은 공권력을 동원한 강압적 전면개발 방식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통해 재생하고 성매매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면서 점진적으로 폐쇄됐다. 사업 시작 당시 49곳의 성매매업소와 88명의 종사자가 있던 것이 현재는 4개소, 5명에 불과할 만큼 대폭 줄었다.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은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지역주민,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를 발족해 갈등을 최소화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집결지 내 건물들을 하나씩 임대·매입해 현장시청을 세워 소통을 강화했으며, △물결서사(예술책방) △뜻밖의 미술관(예술작품 전시관) △노송늬우스박물관(마을사박물관) 등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했다. 또 지난 2019년에는 소통협력공간인 '성평등전주'가 들어서 선미촌의 역사를 담은 상설 기록전시관과 여성인권 및 성평등 실현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폐자원을 가치 있는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전진기지인 '새활용센터 다시봄'이 구축돼 활기를 찾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시민들은 정책의 소비자이기 이전에 공동 생산자'라는 원칙 아래 민선6기부터 시정 모든 분야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실천해왔다. '다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마당'을 뜻하는 다울마당을 통해 생태동물원, 차없는 사람의 거리 등 전주시 주요 현안이나 중심 시책의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게 제도화했다.

또 시민 속에서 답을 찾는 직접민주주의 실현 방식인 '시민원탁회의'를 진행하는 등 시민들과 정책토론회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대한방직부지 개발사업 등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시민들이 직접 지역개발의 청사진을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선미촌 변화의 힘은 시민단체, 여성단체, 행정, 유관기관 등이 모여 '인권과 도시의 흔적'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놓치지 않고 인내심 있게 끌고온 데 있다"면서 "원하는 것을 꿈꾸는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협력을 통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앞으로 선미촌을 '인권과 평화의 숲'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송일/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건설협회와 건설산업 활력 논의

2일 임원들과 간담회 통해 현장 목소리 듣고 활성화 머리 맞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지역 건설산업 애로사항을 듣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전라남도회 회장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전라남도회 공후식 회장, 오선옥강대휘김중섭정순주 부회장, 노영삼 감사, 문병규 윤리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최근 국내외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건설산업 경기가 많이 위축됨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안을 마련코자 이뤄졌다.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지역 건설업계는 더욱 어려운 시기일 거라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식해 일상을 되찾고, 도내 SOC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토록 하는 등 건설경기도 다시 활기를 되찾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공후식 회장은 "전남도에서 적절한 대가 지급을 위한 설계기준 마련 시행 등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도내 발주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의 어려운 현실을 함께 공감할 수 있어 뜻깊었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남도는 사회기반시설 분야에서 45개 사업에 1조 3천365억 원으로 역대 최다 국비를 확보했다.

여기에 고흥~완도 국도 승격, 전라선고속철도(익산~여수), 광주~고흥, 광주~완도(2단계), 여수~남해 해저터널, 광주~함평 광역도로,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총 27건(609.5km), 16조 1천662억 원에 달하는 주요 현안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SOC 투자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기존 SOC사업 외에도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국고 예산을 확보해 지역 건설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 예산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새롭고 다양한 건설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김영안/기자

광주광역시, 디지털 융합 치매의료산업 선도한다

산업부 공모에 '치매코호트 데이터 적용 실증기반 구축' 사업 선정

광주광역시가 디지털 융합 치매의료산업을 선도할 기반 구축에 나선다.

광주시는 '치매코호트(치매 연구대상 집단) 데이터 적용 실증기반 구축'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치매코호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매 예측, 조기진단, 예방, 치료 등을 위한 정밀의료기술 개발과 제품 실증, 기술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5년까지 국비 100억원, 시비 40억원, 민자 60억원 등 총 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광주테크노파크 2단지에 연면적 3300㎡(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치매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조선대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 서울성모병원,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원광대병원 등이 협력 지원한다.

시는 그동안 조선대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과 '국가 치매예측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아시아 최대 규모인 1만6000여건의 다양한 치매코호트 데이터를 확보했다.

앞으로 이 데이터와 참여 의료기관의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매의료 기술개발, 임상시험, 인증 및 인허가 지원, 실증평가 등 원스톱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사업 주관인 광주테크노파크는 치매의료기기 성능, 안전성, 신뢰성 평가 등을 위한 시험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시험평가와 기술사업화 지원 중심의 역할을 맡게 된다.

조선대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은 정밀 의료기술 개발 및 이전, 실증평가기법 개발 및 국가 표준 제안,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한다.

서울성모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은 임상시험과 유효성 평가, 제품 실증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의료산업을 지역 대표산업 중 하나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2002년 생체의료소재부품산업을 시작으로 국내 최대 치과용 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국내 유일 정형외과용 융합의료기기지원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마이크로의료로봇 개발센터 구축과 안과·광학 의료기기산업, 피부의학 결합 고기능성 화장품 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매출과 고용 등 연평균 10% 이상 성장시켰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과 의료산업을 접목시켜 광주만의 경쟁력을 확보해 2030 글로벌 의료산업의 선도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50년 기준 43조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광주에 치매의료산업을 집적화시켜 치매의료산업을 선도하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완도 신지 명사십리·보길 예송 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인증 획득

완도군은 지난 5월 31일 완도군청에서 환경교육재단(FEE)의 국내 본부인 FEE KOREA로부터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보길 예송 해수욕장에 대한 '블루플래그' 인증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블루플래그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블루플래그 인증을 국내에서 최초로 3년 연속 획득하였고, 보길 예송 해수욕장은 올해 신규로 받았다.

블루플래그 인증을 획득한 해수욕장이 2개소인 곳은 국내에서 완도군이 유일하다.

블루플래그 인증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환경교육재단(FEE)에서 안전, 환경교육, 수질, 주변 환경 등 4개 분야, 29개 평가 항목과 137개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해수욕장에 부여한다.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2019년 국내에서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은 매년 재심사를 통하여 갱신되며, 최초 인증 획득 후 관리 부족 등의 이유로 인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이 취소되나 매년 관리에 힘써 올해도 재인증을 받았다.

올해 블루플래그 인증을 취득한 보길 예송 해수욕장은 청명석이라 불리는 갯돌로 이루어진 길이 약 2km, 폭 50m의 해변으로 해변 길이 및 안정도 등에서 높이 평가 받아 안전한 해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질의 경우 WHO(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해변을 둘러싼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40호)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경관이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있다.

완도군은 국내 제1호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블루플래그 3년 연속 재인증, 제2호 보길 예송 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신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 이미지'를 유지하고, 친환경 해수욕장 문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양영율/기자

진도군, 금호도·모도 도선 진수식 갖고 본격 운항

진도군이 지난 1일 고군면 금호도·의신면 모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선 진수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

이날 의신면 초평항에서 개최된 진수식에는 이동진 진도군수와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금다리호와 모세호 두 척의 첫 운항을 축하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비좁고 낡은 도선을 이용하던 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도선을 이용하게 됐다"며 "교통이 불편해 의료, 문화,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소외됐던 주민들이 육지까지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금호도는 69명(36세대)이 모도는 75명(41세대)이 거주하고 있으며, 기존의 금호도·모도 도선은 선박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기상 악화 시 운행하지 못하는 등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었다.

진도군은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2020년 11월 제작에 들어가 7개월만에 도선을 건조하고 운항에 들어갔다.

특히 주민 참여형으로 설계, 선체 제작, 내부 인테리어까지 마을이장과 도선 선장을 참여시켜 주민들이 원하는 도선을 건조했다.

새롭게 건조된 도선 2척은 총톤수 12톤, 최고 항속 16노트로 선장을 포함한 12명이 승선할 수 있다.

금다리호는 금호도를 하루 5차례, 모세호는 모도를 하루 4차례 왕복 운행한다.

한편 진도군은 신규도선의 안전한 접안을 위해 현재 기항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도선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곳의 마을에 도선 운영비를 매년 3,5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강양호/기자

목포소방서, 전남 최초 정식 인증 받은 지휘관이 현장 진두지휘한다

목포소방서가 전라남도 최초로 소방청에서 인증받은 지휘관인 윤대영 현장지휘단 1팀장이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을 진두지휘한다고 1일 밝혔다.

소방에서는 표준화된 지휘관의 자격 체계를 도입하고 역량을 객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난 5월부터 소방청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도입하여 혹독한 실기평가와 심층 면접을 거쳐 풍부한 이론과 경험을 가진 지휘관들의 양성을 시작했으며 인증시험은 전국에서 11명이 합격했으며 그중 윤대영 지휘1팀장이 전남 최초로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목포소방서가 재난현장 통제와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소방서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남정열 서장은"정식으로 인증받은 지휘관이 현장을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아주 든든하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간부들의 역량을 더욱 끌어올려 모든 간부들이 훌륭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동일/기자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전북 확장형 화상회의실 구축·개방

전라북도와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1일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을 구축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지훈 경제통상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중앙 공모사업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협력체계를 구축, 적극 대응한 결과 지난해 11월 선정의 쾌거를 이뤄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돌입한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5개소를 선정하였고, 경제통상진흥원이 가장 먼저 구축되며 선도모델이 되었다. 향후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출 마케팅에 상당한 성과를 이루는데 뒷받침이 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전라북도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내 3층으로 구축되어 1층에는 개별 온라인 상담을 위한 상담부스 10개와 방음설비, 촬영장비 등이 구축된 개인방송실이 설치되었으며, 2층에는 IR·IPO·창업경진대회, 평가·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방송실, 무대 등을 설치해 다목적실을 구축하고, 3층에는 국제회의 등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회의 테이블과 대형 모니터 등의 시설이 갖춰졌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급속한 침체를 겪고, 해외 출장도 제한받는 등 마케팅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도내 중소기업들이 바이어들과 화상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우리 전북에 호남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확장형 회의실이 구축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도내 중소벤처기업들이 비대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화를 앞당기는데 뒷받침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면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판로 개척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송일/기자

전북 진안교육지원청, 봄이라 '진안고원지역대 출범식과 선서식'을 해봄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진안지구연합회 '진안고원 지역대' 출범식 및 선서식이 지난 26일 진안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발열 체크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안교육지원청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출범하게 되는 진안고원 지역대(단대장 윤일호)는 대장 8명을 비롯하여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 대원 74명으로 구성됐다.

출범식은 대원 입장을 시작으로 개식선언 및 운영단 소개,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이 진안고원 지역대 단대장에게 대승인장 및 대기 전달, 선서식 순서로 진행됐다.

앞으로 진안고원 지역대는 오는 6월부터 스카우트 활동을 시작으로 생태탐험, 역사탐방, 여름 방학동안 1박 2일 미니 잼버리를 추진하는 등 2023년 새만금에서 개최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여 자격을 갖춘 스카우트 대원 양성을 목표로 각종 프로그램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교육지원청 박종각 교육장은 "우리지역 학생들이 국가사회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스카우트 대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진안지구연합회 전춘성 회장은 "진안고원 지역대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스카우트 활동을 시작으로 우리지역 학생들이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를 넘어 청소년이 리더십을 키우고 꿈을 더 높이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종철.이희철/기자

남원시, 디카-詩를 통한 남원문학 ~ 기대하세요

남원고전소설문학관은 지난 5월 29일 '디카-詩 문학교실'을 개강했다.

양규창 학예연구사의 지도로 운영하는 문학교실은 직장인들의 참여가 가능한 토요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장소관계로 분반 형식으로 10월 23일까지 무료 운영한다.

이번 과정에서는 '초청 작가와의 만남', 참가자 작품을 모은 '디-카詩集' 발간 등의 과정을 체험할 계획이다.

디카로 사진을 찍고 순간적 감흥을 詩적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조선시대 선비들이 먹으로 그리고 詩한 수를 여백에 넣는 문인화작업과 비슷하다.

5행 이내의 시적 문장을 표현하는 디카-詩는 2004년 출현하여 2016년 국립국어원에 디카-詩 가 문학용어로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도 붐을 일으키고 있으며 온 국민이 디카 사진을 찍고 소통하는 스마트폰 시대에 최적화된 문학이 될 수 있다.

양규창 학예연구사 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학 체험과정을 실시함으로 시민들이 문학관과 문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고전소설문학관은 2020년 개관하여 남원의 고전문학사를 정립하고 관람객이 남원의 고전소설을 자연스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고전문학현장 사진전, 작은 문학제, 문학관리뷰 발간 등을 진행한다.

김송일/기자

제37회 전북자동차 춘계포럼 개최

군산시가 미래자동차산업의 거점단지로 성장하기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를 초청해 춘계포럼을 개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에서 제37회 전북자동차 춘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군산시장, 군산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기업대표, 전북자동차포럼 및 미래형 친환경 미니클러스터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자동차산업 현황 및 기업생존 전략'을 주제로 사단법인 전북자동차포럼 주관으로 진행됐다.

'코로나 이후 자동차 산업의 중장기 전망,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 자동차 기업 등의 생존전략'에 대해 산업연구원 조철 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 등 자동차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육성전략을 모색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발생 전후의 세계 자동차 시장 판세를 분석하고, 기존 자동차 공장은 고임금 수준에 맞는 생산성 향상 및 고급 제품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친환경·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미래차 전환에 따라 기존 중소자동차부품 업체들이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에 진입이 가능하겠으나 한계가 있고,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형화·글로벌화를 추진하고 기존 제조 능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로 다각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전북자동차포럼은 지난 2002년 11월 옛 대우자동차가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하면서부터 전북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대학과 전라북도, 군산시, 주요 혁신기관, 완성차 및 관련 협력업체 등이 모두 참여한 민간 포럼으로 설립됐다.

강임준 시장은 "앞으로도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기술개발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북자동차포럼 공동의장 이·취임식도 함께 개최됐으며,이계철 군장대학교 총장이 신임 의장으로, 타타대우상용차 김방신 대표와 2년간 공동의장직을 맡게 됐다.

김현태/기자

'정읍 쌍화차·주향 거리' 정읍 대표 골목상권으로 거듭난다!

정읍시가 '정읍 쌍화차 거리'와 '정읍 주향(酒香) 거리'를 특화거리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 28일 특화거리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침체한 구도심의 활성화와 골목상권 부활을 위해 쌍화차 거리와 주향 거리를 특화거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읍시 장명동에 소재한 쌍화차 거리는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전국 유일의 쌍화차 거리다.

정읍세무서 후문에서 정읍경찰서로 이어지는 약 450m에 이르는 길에 15개 쌍화찻집이 양옆으로 자리해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을 챙기려는 수요에 힘입어 택배 주문이 쇄도하고 있고, 정읍을 찾는 외지인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거리다.

정읍 주향 거리는 정읍세무서에서 새암로까지 약 200m 길이의 정읍 원도심 대표 상권이다.

지난해 지중화 사업으로 전신주를 없애고 바닥면을 정비했지만, 지역 내 상권의 이동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해 활성화가 절실한 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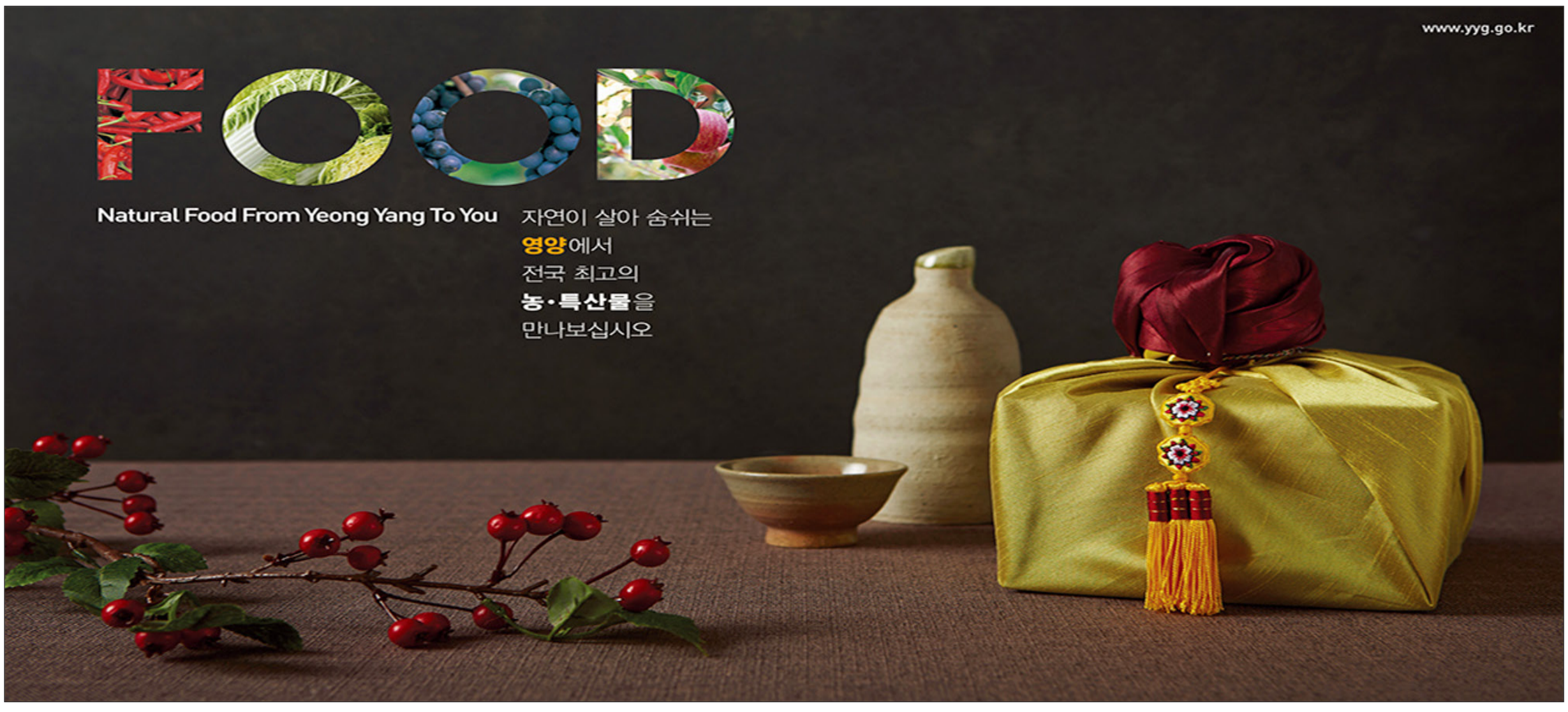
주향 거리는 최근 행안부 골목상권 회복 지원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억원을 포함해 총 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새로운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역 내 양조장 3개소가 막걸리를 비롯한 다양한 요리를 개발해 11월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안전함과 신선함을 기본으로 전통적인 느낌에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해 지역 막걸리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을 계기로 침체한 원도심 골목상권이 부활하길 기대한다며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하은/기자



충북도, '코로나 예방접종'과 '보이스피싱 예방' 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충청북도가 '코로나 예방접종'과 '보이스피싱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나섰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1,508건에 피해액도 237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최근에는 범죄 피해금 절취 유형이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바뀌는가 하면 '발신번호 조작기'까지 동원되는 등 범죄수법 또한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노년층을 중심으로 경제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취업·대출 등을 빙자한 금융사기가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들이 통장 판매·인출책 등으로 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충북도가 지역민 보호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금융감독원의 배너 및 팜플릿 제작 지원 등을 받아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한다.

우선 2분기부터 65세 이상 노년층들을 시작으로 3분기까지 약 100만명의 도민이 예방접종센터를 찾는다는 점에 착안해 도내 13개 예방접종센터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배너 및 팸플릿 비치를 완료했다.

배너 2종은 예방접종센터 접수 대기장소 및 의심증상 관찰실에 설치했으며, 보이스피싱 사례와 대처 방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제작되었다.

총 12페이지로 구성된 팸플릿은 코로나 이후 빈발하고 있는 보이싱피싱 유형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각 유형별 대응요령을 상세히 수록했다.

또한 충청북도와 국가정보원은 관내 체류 외국인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유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 및 청주시 봉명동·진천군·음성군 등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국제범죄 연루 예방법'을 담은 포스터·리플릿을 별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기획한 충청북도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방접종센터를 통한 집단면역 형성 및 보이스피싱 예방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지역민 건강증진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충남지방자치분권 포럼' 창립… 자치분권시대 선도

충남도가 국가 발전 전략이자 지방의 혁신 성장 전략인 자치분권을 길을 여는 선봉에 섰다.

도는 1일 충남도서관에서 '충남지방자치분권 포럼'을 창립하고, 관련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식에는 양승조 지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명선 도의회 의장, 윤황 충남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워킹그룹(WG)장 소개, 좌담회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포럼 창립은 기후위기, 팬데믹(코로나19),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한 지역적 실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지방 현실을 진단하고, 그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포럼에 참여한 4개 기관은 향후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청년문제 등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강화 및 자치권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은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의 견고한 토대 위에서 지방과 수도권은 협력적 동반자로서 국가적 현안을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데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충남은 분권협의회의 내실 운영으로 도 자치분권 정책의 혁신과 개방형 읍면동장 추진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자치분권의 구심점인 충남지방자치 포럼을 통해 충남 자치분권의 방향과 목표를 새롭게 다질 기회로 전문가의 깊은 지식과 오랜 경험을 자치분권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주민주권 구현에 앞장서는 최고의 지방정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지방자치분권포럼은 지역균형발전, 지역거버넌스, 주민자치 등 6개 분야에 워킹그룹장을 위촉해 2021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김원호/기자

대전시, 시민사연 담은 대전이즈유(Daejeon is U) 이모티콘 배포

대전시 3일부터 카톡채널 64,000명, 홈페이지에서 상시 내려받기 가능

대전시는'다함께 대전! 대전이즈유(Daejeon is U)'이모티콘을 3일 오후 2시부터 대전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64,000명에게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4월'대전이 당신을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드립니다.'시민참여 이벤트를 통해 100여 명이 넘는 시민의 사연과 사진을 접수하여 이 가운데 최종 16명을 선정했고, 이들의 사연과 이미지를 활용하여 감사와 사랑,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아 총 16종의 이모티콘으로 제작했다.

또한 지난해 새롭게 바뀐 대전시 브랜드 슬로건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로 구성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이모티콘은 3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 친구 검색 메뉴에서'대전광역시' 채널을 추가한 신규 추가자와 기존 채널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며, 내려받은 시점부터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모티콘 다운로드 기간 만료 후에는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다함께 대전!대전이즈유(Daejeon is U)'이모티콘 뿐만 아니라 지난 해 무료 배포한 '대전 나 좋아!!대전이즈유(Daejeon is U)'이모티콘 파일을 게시하여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대전시 이용균 홍보담당관은 "이번에 배포하는 이모티콘은 시민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시민의 이야기를 그려낸 이모티콘"으로"제작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대전이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브랜드 슬로건의 의미와 가치를 담아냈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김제시, '응답하라!! 스마트세상 가족행복단' 운영기관 선정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현영삼)는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본 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되는 '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운영기관으로 전국 15개의 기관 중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가족치유캠프는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교 4~6학년 가족(자녀1인과 학부모 1인)대상으로 진행되며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캠프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전문상담개입과 사후모임도 진행한다.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5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여름방학 기간인 8월 11일~13일까지 2박 3일간 부안청소년수련원에서 14가족(청소년 14명, 학부모 14명)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7월 30일(금)까지 모집 중이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 스마트세상의 나는? 스마트세상의 우리가족은? ▲ 스마트세상 꿈 꾸러기 되기, 꿈 꾸러기 Training, 나는 부모다 Ⅰ,Ⅱ ▲대안활동 스포츠 클라이밍, 양궁서바이벌,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영삼 센터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가정에서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만큼 가족치유캠프를 통한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키워 가족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 캠프에 참가한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사후모임 활동을 제공하여 가족기능 회복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철원군, '제76회 구강보건의 날'기념 전통시장 거리 캠페인 홍보

6월8일 ~ 6월11일 갈말, 동송, 와수 전통시장 홍보

철원군보건소는 제76회 구강보건의 날(6.9)을 기념하여 전통시장 거리 캠페인 홍보를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저하되는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철원군 보건소에서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올해는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라는 슬로건 아래 구강건강의 평생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철원군보건소 공중보건의 박준원 치과의사는 "구강관리는 드신 횟수만큼, 그리고 자기 전 칫솔질 하는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구강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전하였다.

기간은 6월8일 갈말 전통시장, 6월10일 동송 전통시장, 6월11일 와수 전통시장 순서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횡성기후환경네트워크, 환경의 날 맞아' 탄소중립생활실천 캠페인'추진

횡성군은 6월 2일 오전 10시 횡성호수길 일원에서 탄소중립생활실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다. 환경보호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UN 총회에서 제정한 날로 횡성에서도 환경의 날을 맞아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횡성군이 주관하고 횡성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이번 캠페인에는 정윤철 횡성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20명이 참석하여 횡성호수길 환경 정화를 비롯해 탄소중립생활실천캠페인을 펼친다.

한편, 횡성기후환경네트워크는 2015년 1월 민관파트너십을 구축해 탄소중립 친환경사회를 구현하고자 출범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 지원 및 탄소중립생활실천운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8월에는 어린이 기후캠프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윤철 횡성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환경의 날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 등 탄소중립생활실천운동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횡성군은 6월 2일 오전 10시 횡성호수길 일원에서 탄소중립생활실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다. 환경보호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UN 총회에서 제정한 날로 횡성에서도 환경의 날을 맞아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횡성군이 주관하고 횡성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이번 캠페인에는 정윤철 횡성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20명이 참석하여 횡성호수길 환경 정화를 비롯해 탄소중립생활실천캠페인을 펼친다.

한편, 횡성기후환경네트워크는 2015년 1월 민관파트너십을 구축해 탄소중립 친환경사회를 구현하고자 출범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 지원 및 탄소중립생활실천운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8월에는 어린이 기후캠프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윤철 횡성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환경의 날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 등 탄소중립생활실천운동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동희/기자

평창군, "너의 미래를 JOB아봐!" 중학생 미래설계 캠프

평창군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내 7개 중학교 1, 3학년 학생, 총 46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래설계 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일 용전중학교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1학년과 3학년 각 학년별로 진행되며, 1학년 프로그램은 자기진단 및 직무 탐색을 통한 진로목표 설정, 창직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 및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학년 프로그램은 성격유형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진학계획과 진로설계 지도 등으로 구성되어, 고등학교 진학 전의 자신의 진로에 대해 설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진로캠프를 통해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하고, 중고등학교 학교생활에 대한 목표를 정하는데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진로 교육을 통해 평창군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경북도, 사회소통실장에 최미화 前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임명

이철우 도지사, 사회적 약자 배려 위한 최미화 실장 전격 발탁

경상북도는 사회적 약자 배려와 여권신장 강화 업무를 담당할 사회소통실장(전문임기제 가급, 2급상당)에 최미화(62세, 여) 前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을 6월 1일자로 전격 발탁했다.

신임 최미화 사회소통실장은 그동안 여성정책개발원장을 역임하면서 여성일자리,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책화 하였고 풍부한 정책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저출생, 노인 및 장애인 정책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정책 개발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쌓아온 중앙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장식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최미화 신임 사회소통실장의 발탁은 사회적 약자와 여성의 권익향상과 함께 대내·외 소통 및 협치를 보다 강화하고 행정환경 변화대응과 도정 주요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최고 결정권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출신인 최미화 사회소통실장은 여성 특유의 온화한 성품과 함께 원칙과 소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외유내강형이란 평을 받고 있으며,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대구대학교에서 도시학과 박사수료, 철학 명예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으로 활동하고 매일신문사 논설실장, 뉴미디어 국장,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회장,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는 2016년 12월'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처음 도입되었고, 정책결정 보좌 및 특정업무 분야 등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를 거쳐 가급(2급~3급 상당)으로 지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정책결정보좌 분야의 경우 단체장 임기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세기/기자

창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사격부 선수단 격려

정혜란 창원시 제2부사장은 1일 집무실에서 '제4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메달을 수상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과 관계자를 초대해 메달을 전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했다.

사격팀은 지난달 25일부터 7일간 대구국제사격장에서에서 열린 '제4회 대국광역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13개 종목 20명이 참가해 금메달 4개, 은매달 1개, 동메달 3개를 각각 수확했다.

창원시청 사격팀은 25일 열린 남자일반부 50m권총 단체전에서 장진혁, 김용태, 김기현, 김청용이 1654점을 합작하며 1위를 차지했고, 27일에는 남자일반부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1734점을 합작하여 1위를 차지하여 단체전 2관왕의 영광을 안았다. 김청용은 50m권총 개인전마저 우승하며 대회 3관왕에 오르며 물오른 기량을 뽐냈다.

여자일반부 스키트에서는 김민지가 결선에서 대회 타이기록 51점을 쏘며 우승했다.

이 밖에 정재승, 권준철, 송수주, 김다진은 남자일반부 소총복사 단체전에서 2위, 남자 일반부 3자세, 공기소총에 단체전에서 각각 3위에 올랐고, 남자일반부 스키트 단체전에서는 조용승, 이동하, 류한열이 307점을 올리며 3위에 올랐다.

정혜란 제2부시장은 감독, 코치, 선수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투혼과 열정을 발휘해 창원시 위상을 드높여 준 것에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 창원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구미시, (주)그린텍 '21년 6월 구미시 이달의 기업 선정구미시, (주)그린텍 '21년 6월 구미시 이달의 기업 선정

미시는 6월1일 오전 9시 시청 게양대에서 (주)그린텍(대표 이정곤) 대표 및 임직원과 시청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달의 기업 회사기 게양식을 가졌다.

2021년 6월 구미시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된 (주)그린텍은 2005년 설립하여 국내외 특허 26종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산업용 펌프 제조부문 구미본사 강소기업이다.

(주)그린텍은 사업 초기부터 KS, ISO 인증을 획득하는 등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구 동구에 국내 최대규격의 1800mm 수중사류펌프 설치, 구미 황산지구 배수개선 사업, 경주 오야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다양한 현장에 펌프를 납품하고 있다.

2012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개발, 품질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 현재 국내·외 26종 특허와 성능인증, Q-Mark 인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 등을 획득하였으며, 특히 2017년에는 세계 최초로 펌프에 수중 카메라를 내장한 IoT 기반 펌프를 개발하였다.

해외 사업 진출도 활발하다. 국내외 다양한 물 산업 전시회, 포럼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 베트남 법인 설립, 2018년 경북 수출유망기업 지정, 2020년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으로 지정되고 최근 물산업 선도기업에 재지정되어 해외시장을 활발히 개척할 예정이다.

이정곤 대표는 "(주)그린텍은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관리를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물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도 활발히 개척하여 세계적인 펌프생산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미시는 지역경제발전의 주역인 기업에 대한 기업사랑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월 이달의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시 청사와 KBS 네거리에 회사기가 게양되며,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공영주차장 무료사용증 발급,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남궁영기/기자

울산소방본부, 이호근 소방위 대한적십자사 명예장 수상

헌혈 100회 달성 공로 … 헌혈 정년까지 200회 목표

울산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이 헌혈 100회를 달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119재난대응과 항공구조구급대 소방헬기조종사로 근무 중인 이호근 소방위(51세)가 헌혈 100회를 달성해 '대한적십자사 명예장'을 수상했다.

이 소방위는 1992년도 육군 헬기 조종사 후보생으로 입대하며 첫 헌혈을 시작한 후로 매년 3~4회씩 꾸준히 헌혈을 해왔다.

그는 평상시 헌혈은 본인이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운동 및 수혈자를 위해 금주, 금연을 항상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모은 대부분의 헌혈증을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했다.

이 소방위는 "감사와 봉사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군인과 소방관으로 살아온 만큼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헌혈 정년인 69세까지 200회 목표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소방위는 육군 헬기 조종사로 25년, 소방 헬기 조종사로 5년째 근무하면서 교관조종사와 시험비행조종사 등 고난도의 비행직책을 수행하였고 4,000시간 이상의 무사고 비행도 이뤄냈다.

김기현/기자

하남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최우수 수상 쾌거 '80억원 확보'

하남시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경기 FIRST'에 위례신도시 내 복합 체육시설 건립 사업으로 대규모사업 부문에 참가, 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최종 본선에서 최우수를 수상하며 특별조정교부금 8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2019년부터 시작된'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경기 FIRST'에서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 3년 연속 수상한 지자체는 하남시·파주시·군포시뿐으로, 이 중 시는 3년 간 총 220억원을 확보해 가장 많은 특별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시가 됐다. 시 다음으로 많이 받은 지자체와 비교해도 5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에서 시는 2020년 '공유와 나눔 생활愛(애).疏(소).始(시) 사업'으로 80억원을, 2019년 '하남시 소복(疏福)마당 사업'으로 6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이렇게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도시인 미사지구의 부족한 학교·문화시설 확충하기 위해 학교시설과 연계한 복합문화시설 '생활 SOC 사업'과 문화·체육시설 등이 부족한 원도심인 덕풍동 옛 시청사 부지에 '시민행복센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공모에서 최우수를 수상한 '삼.위.일.체 한지붕 세 가족 건강한 동행'사업은 위례신도시 내 복합체육시설 조성을 내용으로 한다.

하남시 학암동 87번지 일원(위례체육용지 3) 부지 3000㎡, 연면적 6900㎡,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복합체육시설 건립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수영장, 가상체험(VR) 체육시설, 다목적 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을 비롯해 문화교실 등 생활문화센터와 어린이(아동) 돌봄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송파구와 성남시에 비해 생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하남시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상호 시장은 이번 공모를 포함, 3년 간 진행된 공모심사에서 모두 사업설명 PT를 직접하며 심사위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내 수상에 기여했다.

이날 김 시장은 "이번 수상은 열병합발전소라는 기피시설과 생활인프라 부족으로 힘들었던 하남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될 것"이라며, "또 3년 간 확보한 22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숙원인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지붕 세 가족인 하남·송파·성남 등 3개 지자체 주민들이 복합체육시설인 삼위일체로 하나되고, 더 좋은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근수/기자

청도군, 2021년 제1기 새마을대학 수료

청도형 글로벌 새마을 리더 47명 배출

청도군은 지난 27일 새마을회관에서 제1기 새마을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새마을대학은 청도군이 주최하고 영남대 새마을연구센터가 주관하며, 청도군의 새마을정신과 화랑정신을 연계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난 4월 1일 개강했었다.

새마을대학은 새마을소양, 인문교양, 현장학습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 9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고, 배움에 대한 높은 열정 수강생 47명 전원이 수료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배움에 대한 열정과 미래지향적 새마을운동에 대한 책임감으로 수강생 전원이 수료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지속적으로 내실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청도형 글로벌 새마을리더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국립장애인도서관장에 원종필 전 (사)장애인인권센터 기획 실장 임명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6월 1일 자로 국립장애인도서관장에 원종필(元鍾必, 47세)씨를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임명했다. 신임 관장의 임기는 3년(2021. 6. 1.~2024. 5. 31.)이다.

최근까지 (사)장애인인권센터 실장으로 근무한 신임 원종필 도서관장은 그동안 한국장애인연맹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을 지내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복지, 안전, 문화 및 체육활동 분야 등에서 활동해 왔다.

또한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다양한 장애인 문화와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문화향유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 지식정보 서비스 분야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원종필 신임 관장은 오랫동안 장애인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정보복지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경기도 '멈추지마 인디뮤직페스티벌', 소통형 온라인 축제의 새로운 장을 열며 성료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개최한 온라인 음악축제 '멈추지마 인디뮤직페스티벌'이 총 조회수 3만 4,000여회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 '멈추지마 인디뮤직페스티벌'은 올해 처음 열린 행사로, 유명 뮤지션뿐만 아니라 실력 있는 신인급 인디뮤지션을 라인업에 대거 포함하며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전제작을 통해 음향과 영상의 질을 높였고, 행사 안내자가 실시간으로 관람객들과 소통하며 뮤지션과 팬 모두가 만족할만한 공연을 만들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이번 축제는 김포시 백마도를 온라인으로 구현한 '평화', '환상', '공존' 등 3개 무대를 오가며 관람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페스티벌의 정적인 관람방식을 극복하고 오프라인 페스티벌 같은 현장감을 유도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채팅방에서 뮤지션이 팬들과 소통하고 공연이 끝난 후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을 직

접 만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총 25팀의 뮤지션이 참여한 가운데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 그룹 라포엠은 실시간 최대 동시접속자 수 2,100여명을 기록하며 이번 페스티벌의 최대 동시접속자 수 1위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경기도에서 진행한 인디음악 오디션 '인디스땅스'가 배출한 뮤지션들도 많은 활약을 펼쳤다. 롤링쿼츠는 해외 팬들이 채팅창을 가득 채우며 400명이 넘는 동시접속자 수를 보였고, 기프트와 우자앤쉐인은 개최지인 백마도에서 사전 촬영한 영상에서 청량하고 맑은 음색과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연출해 실제 김포시 백마도를 효과적으로 홍보했다.

이어 장필순, 박학기, 함춘호와 봄여름가을겨울이 선보인 '레전드 무대'는 세대를 아우르며 따뜻하고 힘 있는 음악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았고, 국악과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신비함을 보여준 이희문 오방신과의 무대도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장식했다.

시청자들은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채팅창에서 다 같이 떼창을 부르며 '다른 공연 보러 들어왔다가 이렇게 좋은 인디음악을 발견해 기쁘다', '빨리 오프라인 페스티벌이 개최됐으면 좋겠다' 등의 소감을 실시간으로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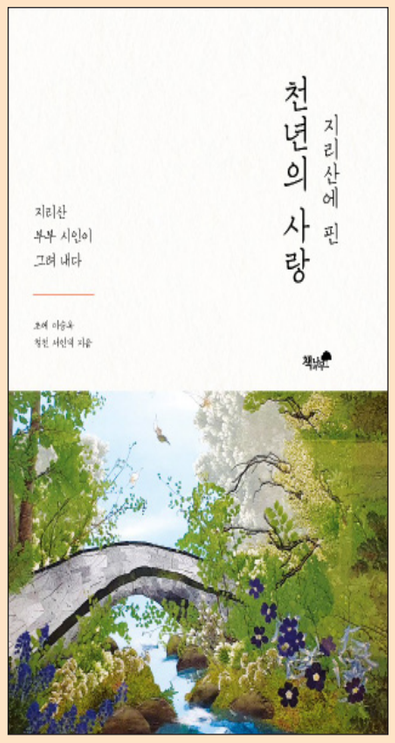
장우일 경기도 콘텐츠정책과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실력 있는 인디음악인들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질 좋은 영상과 음향으로 대중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힘썼다"며 "시청자에게도 이번 공연이 새로운 뮤지션과 음악을 발견하고 또 그 매력에 빠질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공중파 TV, 라디오에서도 편성해 음악축제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최근수/기자

구례군의회 이승옥 의원, '지리산에 핀 천년의 사랑' 시집 발간

지리산 부부시인(이승옥, 서인덕)이 일상의 삶을 그려낸 수채화 같은 시



구례군의회 이승옥 의원(55, 재선, 더불어민주당, 구례군 나선거구)은 남편 서인덕씨(61세)와 함께 「지리산에 핀 천년의 사랑(책과나무 출판사)」을 발간해 화제다.

이 책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지리산이라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문제인 생명과 인생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두 부부가 노래한 시집이다.

또한 누구나 겪는 일상 속의 사랑, 그리움, 행복, 감사 등 인간의 삶을 노래한 담백한 수채화로서 두 부부가 함께해 온 긴 여정 동안 틈틈이 그려 온 부부 시인의 축적된 편린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부부 시인은 각각 산(구례)과 바다(장흥) 출신으로 태생이 완전 다르고 직업도 다르다. 한 사람은 정치인을 감시·단속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출신이고 다른 한 사람은 국민을 위해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으로서 20년 가까이 대척점에 있었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등단한 시인으로 부부의 시라는 공간에서 각자 세상을 바라보는 멋과 풍류는 정반합되어 천년의 부부 사랑, 자연사랑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들 부부 작가는 "첫 시집으로 부부가 함께한 수많은 시간들과의 연민과 고뇌, 그리고 몸부림을 통해 탄생한 작품이기에 출간의 기쁨을 느끼면서도 시집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엄습해 온다"고 술회했다.

또한 "그럼에도 코로나로 지친 독자들이 이 시집을 통해 생명과 치유, 힐링, 자유 속으로 스며들며 삶의 여백이 아름답게 채워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승옥 작가는 전라남도 장흥 천관산 자락 정남진에서 태어났다. 2016년 한울문학에 등단(신인문학상 수상)하였으며 촌음도 나눠 쓰는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펜을 놓지 않고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꽃 누르미 압화작가로 활동하며 문화예술의 다양화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 의리, 포용을 사랑하고 실천해 온 그는 올곧은 가치관을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데 열정을 바치고 있다. 현재는 구례군의회 의원(재선)으로 민주당 4050상설특위 부위원장과 동북아평화협력특위 분과 위원,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인덕 작가는 산수유꽃이 이름다운 전라남도 구례군에서 태어났다. 2017년 한울문학에 등단하였으며 문학지에 자연과 사람 그리고 사랑을 그리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어렸을 적부터 지리산 자락에서 자연과 벗 삼아 성장, 동가식서가숙하며 인생의 질곡을 겪어 흐르는 말 자체가 시며 노래이다.

척박한 환경에도 오로지 깨끗한 선거, 공정한 사회를 위해 청렴과 열정을 헌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급(관리관)까지 올랐다. 저서로는 「매니페스토 신뢰는 권력이다」 등이 있다. 현재는 (사)한국유권자총연맹 명예총재로서 시민운동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초빙교수로서 민주시민의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영안/기자

"깡통열차 타고 낙동강 따라 달려요!"

김해낙동강레일파크 10인승 미니열차 도입

김해문화재단 김해낙동강레일파크가 낙동강을 색다르게 감상할 수 있는 미니열차를 운행한다.

레일파크는 새로운 콘텐츠 '깡통열차'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깡통열차는 낙동강변을 따라 순환하는 10인승 미니열차로 낙동강철교, 꽃이 만발한 들녘, 광활한 낙동강을 20여 분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속도 및 탑승석에 안전성을 더해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컴퓨터 속 레이싱 게임을 연상시키는 고카트를 비롯해 전동자전거(4인), 전동바이크 등 탈것들을 마련해 풍부하고 다양한 레저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철교전망대 주차장에서 이용가능하며 금액은 깡통열차 5천원, 전동자전거 2만원, 고카트 1만5천원, 전동바이크는 1만원~1만5천원이다.

관계자는 "깡통열차를 타고 낙동강 주변의 화려한 풍경을 보다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다양한 체험거리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문화재단 김해낙동강레일파크는 1km 국내최장의 낙동강철교를 중심으로 레일바이크, 와인동굴, 열차카페 등을 갖춘 대표적인 관광시설이다. 최근에는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구축 및 야외콘텐츠 중심의 비대면 관광지로 인정받아 '경상남도 안심관광지 16선'에 선정된바 있다.

최광용/기자

울산 북구 문화쉼터 몽돌, 6월 한달 간 동시집·동화집 원화 전시

울산 북구 문화쉼터 몽돌은 6월 한 달 동안 동시집과 동화집 원화 전시를 마련한다.

문화쉼터 몽돌은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김이삭 아동문학가의 동시집 '공룡특공대' 속 원화 20여 점을 전시한다. 동시집 그림은 일러스트레이터 윤진희 씨가 그렸다.

6천500만 년 전 홀연히 자취를 감춘 '놀라게 하는 도마뱀' 타르보사우루스, '장갑차' 안킬로사우루스, '긴 목 신사' 브라키오사우루스 등 각각의 특징을 유쾌하고 재치있게 표현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김이삭 시인은 2005년 '전어' 외 20편이 시와시학 신춘문예에, 2008년 '타임캡슐을 찾아라'가 경남신문 신춘문예에 각각 당선되면서 시인과 동화작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저서로는 청소년시집 '마법의 샤프', 그림책 '고양이 빌라', 동시집 '바이킹 식당', '고양이 통역사', 기획서 '동시와 동화로 배우는 고사성어' 등이 있다.

이어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울산이야기숲이 기획한 동화집 '와와마을의 비밀수첩' 원화전이 열린다.

동화집 '와와마을의 비밀수첩'은 울산 남구 와와마을에 오랫동안 살아온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긴 동화 모음집이다. 동화작가 김미희, 안성길, 조희양, 최미정, 최봄 등 5명의 작가가 남구 삼호동 주민의 삶에 자신의 상상력을 가미해 각각 1편의 작품을 완성했다.

이번 원화전에서는 '와와 마을 흥부네 집', '와호와 와와', '와와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납닥 갓', '초롱마을의 노랑이' 등 5편의 동화 속 그림을 선보인다. 그림은 화가 구승은 씨가 그렸다.

전시 작가들은 "동시집과 동화집에 수록된 그림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안겨주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6월 한달 동안 문화쉼터 몽돌 2층에서는 몽글몽글 비대면 그림그리기 가족한마당 '강동바다를 품다' 대회 입상작 16점도 전시한다.

김기현/기자

인천시,'바다의 날 기념'팔미도 등대 음악회

시·인천지방해양수산청·경인방송 공동 주관, 올해 7회째

인천광역시는 6월 2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가 있는 팔미도 등대 앞 야외광장에서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 "팔미도 등대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인천시·인천지방해양수산청·경인방송의 공동주관이며, 2015년 처음 시작된'팔미도 등대 음악회'는 매년 바다의 날(5. 31일)을 기념해 팔미도 등대를 찾는 시민들에게 음악을 통한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는 야외 음악회로 자리매김 했다.

올해 7회째를 맞은'팔미도 등대 음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관람객과 함께 할 순 없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안이 될 공연과, 특별행사로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생각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과 함께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스웨덴에서 시작돼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플로깅은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2019년 11월 '플로깅'을 대체할 우리말로'쓰담달리기'를 선정한 바 있다.

이 날 행사는 팔미도 등대 앞 야외광장에서 초청가수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 공연, 플로깅 캠페인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임현택 시 해양항만과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피로가 쌓인 시민분들에게 잠시나마 위로의 시간과 해양도시 인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경상북도, 만주 망명 11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나라의 독립을 위해 고난의 땅, 만주로 떠난 선각자들의 고뇌를 엿보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경상북도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관장 정진영)은 2일에 경북도청 안민관 1층에서 '고난의 땅, 만주로의 여정과 독립의 길'을 주제로 '만주 망명 11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고우현 경북도의장, 우진수 경북북부보훈지청장, 이동일 광복회 경상북도지부장,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참석했다.

6월 한 달간 열리는 이번 특별기획전은 만주 망명 110주년을 맞아 만주에서 펼친 경북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알리고, 그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기획전에는 만주 망명의 험난한 여정을 그린 영상과 함께 백하 김대락의 망명 일기인 '백하일기', 신흥무관학교에서 순국한 권기일의 도장, 허은의 회고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강남호와 김정묵의 '가족사진', 독립군들의 무기 등과 같은 유물 등을 전시해 도청을 찾는 내방객에게 선 보인다.

경북의 독립운동가들은 1910년 나라가 무너지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멀고도 낯선 허허벌판의 땅, 만주로 향했다. 이들은 고향에서 누리던 모든 특권을 버리고, 가족과 문중을 이끌며 돌아올 기약 없는 망명길에 올랐다. 만주 망명에 나선 이들은 1911년에만 2,500명이 넘었고, 1920년대까지 수만 명에 이르렀다.

만주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잡초 무성한 돌밭과 질퍽한 습지뿐인 황무지에서도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항일투쟁을 이어갔으며, 특히 만주 독립운동의 수많은 현장에는 조국 광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며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가족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특별기획전을 통하여 기억 속에 잊힌 땅 만주에서의 고단했던 독립운동과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며, "오늘의 우리나라는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북인으로서 의병·독립정신인 경북정신을 잊지 말고 계승하여야 한다"고 했다.

김세기/기자

LH, 양주 회천 주상복합용지 및 공동주택용지 공급

지하철 1호선 도보 이용 및 초·중학교, 상업용지 인접한 편리한 주거환경

LH는 경기도 양주 회천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1필지)와 공동주택용지(1필지) 총 2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양주 회천신도시는 지하철 1호선으로 지구 전체가 연결돼 교통망이 편리하다. 또한,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및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 잠실까지 30분대로 진입 가능하며, GTX-C노선 개통 이후에는 서울 삼성역까지 약 30여 분 소요된다.

특히, 이번 공급하는 주상복합용지와 공동주택용지는 지구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신설 예정인 1호선 회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유치원, 초등·중학교가 인접해 이른바 '학세권'에 위치한다.

또한, 지구와 연접한 국도 3호선을 따라 병원·대형마트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덕계역·회정역 인근의 상업용지 등에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지구 내 청담천·덕계천이 수변공간으로 조성돼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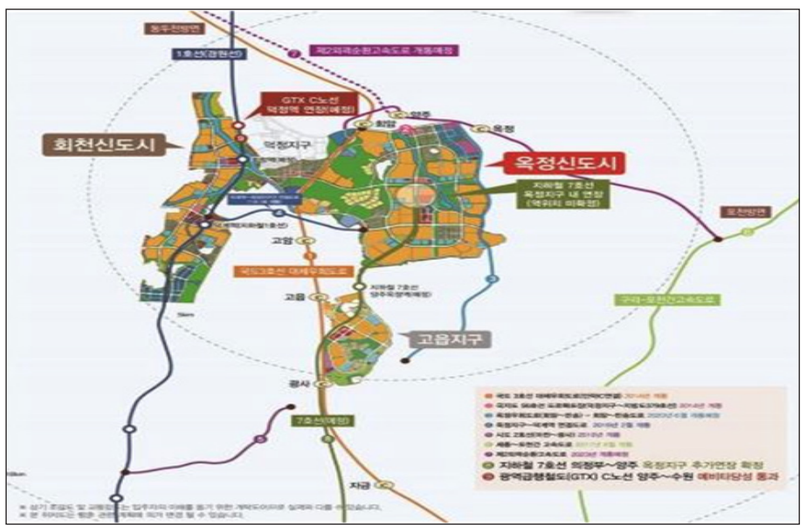
이번 공급하는 주상복합용지 주복-1BL은 54,952㎡ 규모로,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공급 예정가격은 2,146억원(△주거부분 1,929억원 △비주거부분 217억원)이며, 건축제한사항으로 용적률 400%, 건폐율 80%이다.

주거시설은 총 1,712호를 건설할 수 있으며, 호별 면적은 △60~85㎡(1,270호) △85㎡초과(442호)로 구분된다.

공동주택용지 A8BL 공급 면적은 20,467㎡이며, 공급 예정가격은 426억원으로 3.3㎡당 687만원 수준이다. 용적률은 200%로, 총 375호 건축이 가능하다.

공급 방법은 주상복합용지는 경쟁입찰이며, 공동주택용지는 추첨 방식이다.

주상복합용지 입찰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LH 청약센터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하면 된다. 개찰은 입찰 당일 오후 5시이며, 개찰 결과는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LH 청약센터를 통해 공개된다. 계약체결은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최광수/기자

인천시, 뷰티산업 재도약 잰걸음

인천 뷰티산업 활성화 4개년(2021 ~2024년) 계획 수립

인천광역시는 인천 뷰티산업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인천 뷰티산업 활성화 4개년(2021 ~2024년)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올해 1월 27일에 중앙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k-뷰티 혁신 종합전략'과'인천 뷰티산업 활성화 관련 간담회 개최'등을 통해 뷰티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 했다.

시는「인천 뷰티산업 활성화 계획」을 통해 뷰티관련 사업을 고부가 가치화해 인천지역 경제성장 동력 창출 및 뷰티 선도도시 구현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 현재 침체되어 있는 인천 화장품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인천 뷰티산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뷰티산업 활성화 계획」의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로는 ▲뷰티산업 육성 지원으로 ① 뷰티 스타기업 육성 ②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③ 임상시험 지원, ④ 국내·외 판로 지원, ⑤ K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⑥ 시험·평가·인증 지원, ⑦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뷰티기업 발굴 및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소규모 뷰티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것이다.

▲산·학·연 네트워킹 구축 일환으로 ①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자문위원회 구성, ② 인천 뷰티기업 간담회 개최, ③ 뷰티 컨퍼런스를 개최해 산학연이 협업하여 화장품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어울(Oull) 정상화 추진을 위해 금년도 3월 어울(Oull) 운영사인 ICA 조직구성 개편 및 변경협약 체결을 완료했고 새로이 어울(Oull) 제품(신제품·리뉴얼) 총 18종을 출시할 계획으로, 금년도 4월 어울(Oull) 리뉴얼 제품'어울 프리미엄 꿀광 마스크팩'출시 후 국내 종합광고대행사 ㈜컴투게더PRK와 인천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Oull) 마케팅에 적극 협력하기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21.4.) 하고'어울 프리미엄 꿀광 마스크팩'제품으로 5억 5천만 원 발주 계약을 완료 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또한 중국 소비자들에게 어울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중국 웨이하이시 소재 주중인천 대표처 내에 ICA 중국 지사를 개소하고 중국 위생허가 취득 및 관리, 중국 현지 통관 업무, 중국내 거래처 관리 및 현지 영업을 할 계획으로 주중 인천대표처를 통한 어울(Oull)제품 판촉활동 강화 및 중국 등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 할 것이며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매출을 증대시킬 것이다.

특히, 인천시 뷰티분야 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뷰티산업관련 제품생산, 연구개발, 인력양성이 이루어지는 특화지역인 k-뷰티 클러스터 지정에 주목하고, 인천 뷰티산업분야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금년도 하반기 중앙정부 공모 예정인 K-뷰티 클러스터 지정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K-뷰티 클러스터로 지정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기술개발·인력양성·유통판매·정책지원 혜택을 받아 화장품 산업의 자생적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k-뷰티 한류 브랜드의 집적된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부상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준성 인천시 미래산업과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인천 경제역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디지털 혁명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를 동력으로 뷰티,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미래차 등의 산업기술 혁신과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뷰티산업을 고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충청남도, 미래 산업 이끌 '스타기업' 15개사 선정

기술 혁신 등 전용 프로그램·중기부 패키지사업 연계 지원

충남도는 2일 충남테크노파크와 함께 도내 성장 가능성이 크고 잠재력 있는 '충남지역 스타기업' 15개사를 신규 선정해 발표했다.

충남 스타기업 육성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특화 산업 육성사업 가운데 하나로, 세계적인 강소기업 역량을 갖추기 위해 기업과 혁신기관이 함께 기술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2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접수된 32개사에 대해 단계별 심사를 거쳐 최종 15개사를 선정했다.

올해 선정한 스타기업 15개사는 글루가, 머신앤비전, 바이캠, 발맥스기술, 비츠로밀텍, 알가, 에이스라이프, 에이스로보테크, 엘디티, 엠에스테크, 이티에스, 케이유피피, 코론, 탑텍, 피엔피이다.

주력 산업별로 보면, △친환경 모빌리티 7개사 △스마트 휴먼 바이오 4개사 △차세대 디스플레이 4개사 등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분야의 기업들을 고루 선정했다.

이들의 지난해 기준 평균 매출액은 216억 원이며, 평균 근로자 수는 60명, 평균 수출액은 28억 원,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CAGR)은 35%로 나타났다.

스타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술 혁신,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성장 컨설팅 지원 등 전용 프로그램(연간 3000만 원 내외)과 중소기업벤처부의 '수출 성공 패키지사업(연간 2000만 원 내외)'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가 기술적 주요 현안 및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 등을 상시 지원하고, 전문 컨설팅 기관과 협업을 통한 중·장기 성장 전략 수립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이 우수한 스타기업은 차년도에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대 2년간 연 2억 원 내외의 스타기업 상용화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선정한 스타기업 15개사가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해 지역경제의 미래를 이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6개 업체를 선정·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까지 매년 성장 잠재력과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을 모집해 육성할 방침이다.

고정화/기자

경북도, 영천경마공원 건설... 3일 건축허가 접수

9월경 건축허가완료 예정, 2024년 9월 개장 목표로 추진 중

한국마사회는 3일 영천경마공원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영천시에 접수할 예정이며, 경상북도는 인허가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됨으로 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경산 안심역에서 영천 금호(경마공원)까지 연결하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연장 계획이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가신청에 앞서 수차례 관련기관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당부서 의견을 반영하였고, 현재 원만한 허가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된 상태로써 오는 9월경에는 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천경마공원은 2024년 9월 개장을 목표로 진행중이며, 국내 최초 잔디주로를 갖춘 국제수준의 경마공원으로 개장시에는 연 2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먹거리가 될 문화관광레저 산업의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며, "광역철도 연장을 이룬 것처럼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영천시, 한국마사회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수준의 경마공원을 건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전북 확장형 화상회의실 구축·개방

전라북도와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1일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을 구축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지훈 경제통상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중앙 공모사업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협력체계를 구축, 적극 대응한 결과 지난해 11월 선정의 쾌거를 이뤄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돌입한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5개소를 선정하였고, 경제통상진흥원이 가장 먼저 구축되며 선도모델이 되었다. 향후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출 마케팅에 상당한 성과를 이루는데 뒷받침이 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전라북도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내 3층으로 구축되어 1층에는 개별 온라인 상담을 위한 상담부스 10개와 방음설비, 촬영장비 등이 구축된 개인방송실이 설치되었으며, 2층에는 IR·IPO·창업경진대회, 평가·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방송실, 무대 등을 설치해 다목적실을 구축하고, 3층에는 국제회의 등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회의 테이블과 대형 모니터 등의 시설이 갖춰졌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급속한 침체를 겪고, 해외 출장도 제한받는 등 마케팅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도내 중소기업들이 바이어들과 화상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우리 전북에 호남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확장형 회의실이 구축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도내 중소벤처기업들이 비대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화를 앞당기는데 뒷받침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면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판로 개척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송일/기자

군포, 7월 배달특급 개시…이석훈-한대희, 배달특급 성공 기원 간담회 개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사 경기도주식회사의 이석훈 대표이사와 한대희 군포시장이 오는 7월 배달특급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힘을 모았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석훈 대표이사와 한대희 군포시장이 1일 군포시청에서 배달특급 활성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배달특급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석훈 대표이사는 "주거 밀집지역인 군포는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며 "지역화폐 사용률도 높아 배달특급과의 시너지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 군포시와 협력한다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대안제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포를 위한 지역밀착 서비스, 이벤트 등으로 회사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대희 군포시장 역시 "군포의 배달특급 론칭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여러 조직과 협력해 최대한 지원 사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들은 간담회 이후 김미숙·정윤경 도의원, 이세균 상인회장 등과 함께 배달특급 조기 정착을 위해 군포시청 앞 주변 상권을 돌며 배달특급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가두행진을 벌였다.

가맹점을 찾아 수수료 1% 배달특급 서비스 전반에 대한 설명은 물론, 착한 소비를 장려하는 취지를 알리며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최근수/기자

대구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견본주택 개관

• 침산생활권에 들어서는 랜드마크 단지

- 지하2층~지상27층, 4개동/ 총 568가구 (아파트499가구, 오피스텔 69실) 일반분양

• 아파트 3.3㎡당 평균 1,549만원대로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

- 아파트: 6월14일(월) 특별공급/ 15일(화)~16일(수) 1순위청약/ 17일(목) 2순위청약

- 오피스텔: 6월 9일(수) 청약/ 10일(목) 당첨자발표/ 11일(금) 계약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전예약제로 운영... 사이버 견본주택 동시 오픈

대우건설(대표이사 김형)이 오는 4일(금)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1가 228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견본주택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홈페이지(www.prugio.com/hb/2021/chimsan)를 통해 사전 관람 신청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6월 4일(금)부터 6월 9일(수)까지 약 6일간 오픈하며, 주기적 방역·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비접촉 상담 등 철저한 방역태세를 갖춰 안전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견본주택 방문이 힘든 분들을 위해 분양일정,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실물모형 VR영상 등의 분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 견본주택도 동시에 오픈한다.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지하 2층 ~ 지상 27층 규모로, 아파트 499가구와 오피스텔 69실 등 총 568가구가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아파트 ▲78㎡A 67가구 ▲78㎡B 21가구 ▲84㎡A 340가구 ▲84㎡B 71가구와 오피스텔 ▲84㎡A 23실 ▲84㎡B 46실이 공급된다.

아파트 청약일정은 6월 14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화) 1순위 당해, 16일(수) 1순위 기타, 17일(목)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23일(수)이며, 정당 계약은 7월 5일(월)부터 7일(수)까지 3일간 진행된다.

아파트 1순위 청약 조건은 입주자모급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나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된 무주택자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다. 또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단지는 전 세대가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됨에 따라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549만원으로 책정됐다.

오피스텔 청약은 6월 9일(수) 청약 접수, 10일(목) 당첨자 발표, 11일(금) 정당 계약 순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한편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당초 '침산 푸르지오 에듀포레'라는 단지명으로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기 입주한 '침산푸르지오 1차(2005년 입주)', '침산푸르지오 3차(2004년 입주)'와 지명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역세권 입지 장점을 강조할 수 있는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로 단지명을 최종 확정했다.

■ 대구 북구의 중심 침산생활권역에 위치... 북구와 서구 모두 이용 가능해 폭넓은 인프라 '각광'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북구와 서구 생활권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 인프라 역시 뛰어나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원대역과 북구청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광역교통 수단인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을 비롯해 KTX·SRT가 이용 가능한 동대구역과 서대구역(2021년 예정)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북대구IC, 서대구IC, 신천대로 등을 통해 대구 전역은 물론 대구 외곽지역까지 접근성이 뛰어나며, 팔달로 및 침산남로 4차선 대로변이 연접해 있어 침산동, 동대구 도심권 등 주요 생활권 접근이 용이해 폭넓은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 등 생활 인프라 '우수'... 직주근접 요소도 갖춰

단지는 인근에 다수의 학교가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침산초, 달산초, 침산중, 대구일중, 달성초, 경일중 등 반경 1km내에 6개의 학교가 있으며, 침산동 사교육시설과 대구시립북부도서관도 인접해 있어 학령기 자녀를 둔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쾌적한 자연환경도 강점으로 손꼽힌다. 침산생활권에 위치한 이마트·홈플러스·이마트 트레이더스·팔달시장·대구복합스포츠타운·오페라하우스 등이 있어 쇼핑과 문화 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북대구세무서·대구북부경찰서·DGB대구은행 등도 가까워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단지 가까운 곳에 신천, 금호강 등 수변 환경과 침산공원·해바라기공원·연암공원·달성공원 등 풍부한 녹지가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는 뛰어난 직주근접 요소도 갖췄는데 대구제3일반산업단지, 대구삼성창조캠퍼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서대구일반산업단지 등이 가까워 풍부한 배후수요가 예상된다.

■ 남향 위주의 동배치와 다양한 평면 설계... 높은 주거 만족도 기대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푸르지오를 상징하는 그린 색상과 골드라인을 적용해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입면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선 단지 내에는 고급스러운 식재와 섬세한 마감으로 차별화된 조경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그리너리카페, 독서실,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생활지원센터 등 입주민 남녀노소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며, 택배 차량도 진입 가능한 지하주차장 설계와 폭 2.5m 이상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조성해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이 조성된다.

단지는 조망,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해 남향(남동,남서)과 4BAY 판상형 위주로 배치했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동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했다. 또한, 단지 입구부터 집 안까지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구역을 5개로 구분하여 관리·차단하는 공기청정시스템인 5ZCS(Five Zones Clean-air System)가 적용되며, 지하주차장에는 공용부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LED 디밍 시스템과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설비가 설치된다.

각 세대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평면을 구성했으며, 전 타입 현관창고 공간을 제공하여 입주민들의 만족감을 높일 계획이다. 실내에는 LED조명, 실별온도제어시스템, 대기전력 차단장치 등을 설비해 높은 효율성을 통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한 실시간 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도 적용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이 단지는 교통부터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 등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인프라를 모두 갖췄다"며, "특히 인접한 침산동 생활권과 북구, 서구의 폭넓은 생활권을 누릴 수 있고, 배후수요도 풍부해 향후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홈페이지: www.prugio.com/hb/2021/chimsan

- 모델하우스 : 대구시 동구 신천동 328-1번지 (동대구역 맞은편)

- 문의번호 : 1661-8882

박류석/대기자